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따른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에 관한 연구

-테러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군사학과

황 경 록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따른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에 관한 연구

-테러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A Study of Army Special Forces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Emphasizing terrorism response improvement-

2024년 02월 23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군사학과

황 경 록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따른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에 관한 연구

-테러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광 현

이 논문을 군사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군사학과

황 경 록

황경록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김법현</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장상국</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광현</u>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감사의 글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칠혹 같은 어둠을 헤치고 새벽이슬 맞으며 국가 수호를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고 있을 특전부대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년간 수없이 많은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세계최강 범고래 팀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군사학 중에서도 특수작전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저의 도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Stockdale paradox” 정신을 새기며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로 이끌어주신 심사위원님과 지도교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고 한평생을 약속한 사랑하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도 곁에서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나의 신부 이지 지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3. 12. 마지막 날, 무정대에서
황 경 록 드림.

목 차

표 목차

그림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2
제1절 비전통적 안보위협	12
1. 비전통적 안보위협 개념 및 특징	12
2.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	16
3.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특수작전부대와와의 관계	19
제2절 특수작전 및 전법	21
1. 특수작전 개념 및 특징	21
2. 특수작전부대 편성	22
3. 특수작전 전법	24
제3절 분석의 틀	26

제3장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적인 사례분석	27
제1절 작전 개요	27
제2절 테러 영향요인	29
제3절 특수작전 전법	39
제4절 소결론	45
제4장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 분석 및 발전방향 ..	47
제1절 테러 영향요인 분석	47
1. 다영역 차원의 테러양상	47
2. 다발적·복합적 테러	49
3. 국가적 차원의 테러대응 및 지원	51
제2절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 분석	54
1. 연합 대테러작전 개념 발전	54
2. 합동성 기반의 조직편성	55
3.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57
제3절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 발전방향	59
1. 대응개념: 명확한 작전목적 설정	59
2. 조직편성: 합동특수작전부대 편성	61
3. 무기체계: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62
제5장 결론	65
제1절 연구 결과	6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한계	66
참고문헌	67

표 목 차

<표 2-1> 비전통적 안보위협 우선순위	16
<표 2-2> 비전통적 안보위협 영향요인	18
<표 2-3> 특수작전의 특징	22
<표 2-4> 특수작전 전법	25
<표 3-1> 해적 사건 발생 현황	29
<표 3-2> 한국인 선주 및 승선 선박 소말리아 해적피랍 현황 ..	31
<표 3-3> 소말리아 해적의 테러 유형	34
<표 3-4> 아덴만 여명작전 사례분석 결과	45
<표 3-5> 대테러작전 시 보완할 사항	46
<표 4-1> 북한의 무인기 보유 현황 추정	49

그림 목 차

<그림 2-1> 한국군 특수작전부대 조직도	23
<그림 2-2> 분석의 틀	26
<그림 3-1> 청해부대 작전팀 편성	41
<그림 3-2> 해군 특수작전부대 사용 장비	43
<그림 4-1> 국내 대테러 체계도	53
<그림 4-2> 美 특수작전부대 조직도	56
<그림 4-3>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및 대테러작전사령부 편성(안)	61

ABSTRACT

A Study of Army Special Forces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Emphasizing terrorism response improvement-

Hwang kyungrok

Adviser: Prof. Kim kwanghyun. Ph.D.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Graduate of Chosun University

Regarding national security, various types of unexpecte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re evolving and increasing beyond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o people's lives and national security. These day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rapidly changing to an elevated stat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ituation, various terrorist acts and social and natural disasters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re occurring. The military should recognize the trend of changes in war patterns and prepare for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beyond military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operation of special operational units in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by raising the following issues in various situations wher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rease and the battlefield environment changes.

In 2014, a domestic ship, the Samho Jewelry, was captured by Somali pirates in the Gulf of Aden. In response, the Naval Special Warfare Flotilla inspection and inspection team of the Cheonghae Unit successfully operated through maritime counter terrorism operations. It says that the Navy's Special Operations Unit has developed a strategy for successfully responding to

terrorism, a representative type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We will derive factors influencing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at continue to occur, increase, and evolve. Accordingly, three strategies, which are methods of conducting combat by special operational units, will be classified and analyzed for the analysis of strategies.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analyze what kind of tactics the Navy Special Operations Unit operated according to th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se case analysis results, the hypothesis raised by analyzing and applying the reality of the Army's particular operation unit's ability to respond to terrorism will provide. In conclusion, I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development regarding what strategies the Army Special Operations Unit should carry out to respond to futur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Keywords: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Terrorism,
Special Operations, Factors, Tactic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안보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전통적 안보위협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냉전 종식 후 강대국 간 이념적 대립과 전쟁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경제, 자원, 종교, 인종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소규모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한 국가적 테러와 자연재해, 대형재난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은 초국가적 위협으로 군사, 외교, 경제와 같이 기존의 표준화된 방식과 수단으로 조치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역할과 대응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군은 국민의 군대로 전·평시 영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2022 국방백서』와 『국방재난대응백서』를 통해 군의 실질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급 재난 발생 시 군병력과 장비를 즉각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양하게 진화 발전되고 있다.

냉전기 강대국들은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대규모 전면전을 가정한 전쟁계획과 재래식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11 테러 사건 이후 제기되는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새로운 안보위협과 분쟁 양상은 그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분쟁 양상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대응 전략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직후 발간된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에서는 기존의 위협에 기반한 접근(Threat-based Approach)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

이러한 냉전기 이후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1990년 초반부터 전쟁이외의 분쟁 및 평시에 전쟁 억제와 분쟁 해결, 그리고 평화증진을 위한 임무수행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의 개념과 원칙을 발전시켜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탈냉전기에 이라크 북부, 보스니아, 아이티, 소말리아, 코소보 분쟁에 개입하여 MOOTW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9·11테러 사건 이후 대테러전쟁 목적으로 수행된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도

1)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pp. 13-14.

MOOTW 차원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최근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국내·외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발생한 아덴만 여명작전에 투입된 해군 특수작전부대(NSWF: Naval Special Warfare Flotilla)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주요 유형인 대테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듯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대되는 현대전에 있어 특수작전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다양한 테러 행위, 사회·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전쟁 양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군사적인 전통적 안보위협을 넘어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전통적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특수작전부대 테러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둘째, 대테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덴만 여명작전의 교훈은? 셋째, 대테러작전 수행을 위한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운용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대테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덴만 여명작전의 교훈을 도출하여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효과적인 작전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탈냉전기 이후로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전통 안보위협은 다양하고 다변화되어 왔으며, 군은 범정부 차원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중에서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은 상시 준비를 완비하고 있는 군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비전통적 안보위협, 특히 테러의 영향요인과 특수작전부대의 대응을 분석하여 테러에 대응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 면에서 1989년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2년 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인해 냉전이 종식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9·11테러 이후 지속해서 진화되고 증가하는 비전통 안보위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중에서도 본 연구자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내용은 테러 대응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수행한 2011년에서부터 본 연구를 진행 중인 2023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둘째, ‘대상’ 면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에 가운데서도 육군 특수작전부대(ROK-SWC: ROK Army Special Warfare Command)와 해군 특수작전부대(NSWF: Naval Special Warfare Flotilla)를 선정하였다.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들은 각종 특수작전과 테러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전략자산이며, 다양한 전장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결심수립자들에게 군사적 가용 방안의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 대응에 기여 해왔다. 따라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테러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해군 특수작전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셋째, ‘내용’ 면에서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특히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테러의 영향요인과 특수작전부대의 전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위기 사태 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작전부대들의 특성상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유형은 범위가 넓고 관련 연구 또한 방대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중에서 특수작전부대가 수행

한 테러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영향요인과 전법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테러에 대응한 해군 특수작전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과 관련된 기록과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특수작전부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위협이 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전·평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특수작전부대의 다양한 임무 중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 특히 테러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테러 위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특수작전 전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사 분야를 중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은 경험적 사회과학 관점을 적용한다. 사회현상은 규칙 또는 반복적인 질서로 움직이는 존재론적 가정과 이러한 과정에 기초한 인과형 가설의 경험적 검증이라는 분석 절차를 통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지향하고 있다. 도출된 규칙은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사용된다는 사회 비교 연구방법론²⁾에 기초한다. 이처럼 테러의 영향요인과 특수작전부대의 전법에 관한 연구도 역시 경험적 사회현상 요인에 의해서 변화, 발전된다는 인과 논리를 주안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라 학문적 이론을 기초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영향요인과 특수작전 전법을 먼저 도출하였다. 도출된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과 특수작전 전법을 해군 특수작전부대의 테러 대응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영향요인과 전법을 바탕으로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선택 적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안보 차원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가장 대표적인 테러 상황에서 해군 특수작전부대의 역할과 실제 대응 사례를 종합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문헌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을 제시한 학자들의 이론을 기초로 분석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후 해군 특수작전부대가 성공적으로 대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중에서 테러에 대응한 사례를

2) 김진웅·김지희, 『비교사회 연구방법론: 비교정치, 비교행정, 지역연구의 전략』, 서울: 한울, 2000, p. 12.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향후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전법 발전방향에 적용하였다. 비전통적 안보위협 및 군의 관계와 특수작전 전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론, 군사전략론, 국가위기관리론, 국제정치구조이론 등 다수의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논리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본 논문은 논리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대두되던 탈냉전 이후의 한국군 특수작전부대가 대응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군사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본 논문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간행된 자료들을 우선 활용하였고 부족한 자료들은 단행본과 다른 학자들이 선행 연구한 논문, 학술지 등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는 결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였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관련된 이론과 개념 그리고 선행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근에 해군 특수작전부대가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영향요인과 전법을 통해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식별된 교훈을 토대로 육군 특수작전부대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른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의 발전방향을 특수작전 전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포함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대두되던 9·11테러 이후 미국을 주도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많은 군사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까지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영향요인과 전법 측면에서 특수작전부대의 발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선행연구이다. 둘째,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따른 군의 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셋째, 검토 결과는 현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의 대응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한 연구

국방부에서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전통적 안보위협을 넘어서 사이버 공격과 테러, 재난, 화생방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사이버 기술의 발전추세에 부합한 테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작전부대의 조직·인력·장비·물자의 보강과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대테러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종합발전 로드맵 및 작전부대의 합동훈련 등 대테러 대응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 추진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를 위해 2021년에 『통합방위지침』과 『군 테러 위기 대응 실무메뉴얼』을 보완하여 드론 테러 위협의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적용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³⁾

이호준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다양화 및 범위 확대를 주장하였다. 주요 국가들은 군비경쟁과 4차산업혁명의 기술 발달로 인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증

3)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pp. 63-68.

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①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② 포괄적 안보 ③ 협력적 안보 ④ 인간 안보 ⑤ 초국가적 안보 등 5가지의 안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요 국가(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전략과 안보위협 인식과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 분석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의 다변화로 인해 중요도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자료로 참고하였다.⁴⁾

김기주·손경호는 “다차원적 해양 안보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방향을 중심으로”에서 동북아 해양 안보의 다원화를 ① 북한 위협에 대비를 위한 해양 균형 달성과 ② 해양 분쟁을 억제하고 ③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3축 균형 전략과 기동함대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사례인 아덴만 여명작전 분석 간 해군 전력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본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⁵⁾

한승조는 “한국군의 비전통적 위협 대응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위협 이외에도 20세기 후반부터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우선순위를 델파이기법(Delphi Method)과 분석적 계층기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 중에서도 테러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

조용만·박성범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부상에 따른 다국적 실험의 유용성 고찰”에서 미국 정부 유관기관과 NATO 회원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험기법과 결과의 산출물들은 검증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효용성과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서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다국적 실험에 참여전략 차원에서 유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4) 이호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pp. 14-19.

5) 김기주·손경호, “다차원적 해양 안보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3권 제1호 통권 49호, 2013, pp. 15-18.

6) 한승조, “한국군의 비전통적 위협 대응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정보 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1호, 2022, pp. 11-21.

비전통적 안보위협 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특수작전부대의 투입에 대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⁷⁾

김수열·김정규는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지상군의 역할”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분석하여 위협 유형별로 지상군의 위기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특히, 국방부의 역할, 정부 부처와 협조,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의 위기관리 틀을 이용하여 현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특수작전부대 운용 발전방향에 참고가 되었다.⁸⁾

2.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오늘날에는 원인에 상관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⁹⁾ 군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군이 대응한 연구로 한정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태영·이창한은 “군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 대테러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테러 위협의 양상을 분석해 향후 테러에 대응한 군의 대테러 역량 강화와 현 분야별 개선 방안으로 조직편성, 수사 역량 강화, 대테러 합동 정보공유 체계구축 등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인 테러에 대응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영향요인과 전법분석 간 많은 도움이 되었다.¹⁰⁾

김성일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의 재난 대응 역할 분석: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WMD-CM 체계를 중심으로”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한국군과 외국군의 역할과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국가안보 차원의 재난 발생 시 군의 역할 확장 필요성과 체계구축 방향,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 보강과 여건 보장 방향

7) 조용만·박성범, “비전통적 안보위협 의 부상에 따른 다국적 실험의 유용성 고찰”, 『국방연구』, 제54권 3호, 2011, pp. 1-30.

8) 김수열·김정규,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지상군의 역할”, 『전략연구』, 제22권 3호, 2015, pp. 139-163.

9) 김진향, 『포괄안보 시대의 위기관리 전략』, 성남: 북코리아, 2018, p. 15-20.

10) 김태영·이창한, “군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1호, 2017, pp. 49-50.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¹¹⁾

박창희는 “국제 테러 위협에 대한 지상군의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강조하면서 이 가운데 국제테러리즘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더 이상 테러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테러리즘의 진화와 군은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한국군의 대응에 관한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 중 위협인식에 해당하는 테러 위협을 분석하는 연구로 미래 테러 영향요인을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¹²⁾

문장권은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군사혁신 방안 연구: 합동 신속 대응부대 창설 시 효과 분석”에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진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더불어 탈냉전 이후 국민의 요구는 경제와 복지 분야에 큰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테러대응을 위한 조직편성과 발전방향을 구상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¹³⁾

부형욱·이강규는 “안보위협의 진화와 우리 군의 임무: 다재성을 갖춘 적응군 건설을 위한 시론적 논의”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위협의 발생, 과급, 해결의 범위 등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개별적, 분절적인 형태의 위협이 아니라 복합적인 동시에 포괄적인 형태의 위협이라고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군의 역할의 필요성, 역할의 범위와 규모, 역할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대응을 위한 군의 투입 필요성에 관한 주장과 다양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본 연구의 특수작전부대 대응개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¹⁴⁾

종합적으로 볼 때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군

11) 김성일,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의 재난대응 역할 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p. 1-5.

12) 박창희, “국제테러 위협과 지상군의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 『한국군사학논집』, 제72호, 2016, pp. 1-10.

13) 문장권,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군사혁신 방안 연구: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효과 분석”, 『군사연구』, 제150집, 2020, pp. 81-90.

14) 부형욱·이강규, “안보위협의 진화와 우리 군의 임무: 다재성을 갖춘 적응군 건설을 위한 시론적 논의”, 『국방연구』, 제55호, 2012, pp. 1-3.

의 역할과 대응에 주안을 두고 발전방안과 정책적 건의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따른 육군 특수작전부대 테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에 참고가 되었다. 기타 단행본들과 국방부에서 출간한 『2022 국방백서』, 『국방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한 “국가재난관리와 연계한 국방재난대응체계 발전방향 연구” 등도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위와 같이 국가안보 차원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발생에 따라 군의 역할과 대응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3.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개념적 연구와 여러 유형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따른 군의 대응에 관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초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반도 안보 환경의 특성상 6·25 전쟁 이후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한 전통적 위협과 동시에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따라 군의 역할이 증대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의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포괄적 안보 개념과 세부적인 유형별 분류와 소개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일부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연구를 통해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특수작전부대에 의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연구는 미진하였다. 그렇지만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다각도에서 개념적 수준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연구자들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정책적 제언들과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작전부대 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군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일부 존재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특수작전부대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는 미흡한 반면에 특수작전부대가 창설된 6·25전쟁 이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특수작전부대는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과거 특수작전부대는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언론이나 방송매체에 활약상 등이 보도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연

구도 특수작전부대의 특수성 때문에 연구도 미진하였다. 특히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과 특수작전의 전법에 관한 연구는 부재했다.

본 연구는 특수작전부대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테러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테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덴만 여명작전의 교훈은?, 대테러작전 수행을 위한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운용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개념적 연구와 포괄적인 군의 투입과 대응 관련 연구로 특수작전부대 대응과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김광현·김법현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한 특수작전 전법발전에 관한 연구”¹⁵⁾의 분석의 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특수작전부대의 전법을 분석하여 미래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른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5) 김광현·김법현,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한 특수작전 전법 발전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제150집, 2020, p. 1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제1절 비전통적 안보위협

1.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개념 및 특징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군사적인 위협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안보위협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사적 수단을 제외한 기타 다양한 유형의 위협을 뜻한다. 즉 전통적 위협과 같이 외부로부터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개념이며 그만큼 비전통적 안보위협도 전통적 안보위협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21세기 국가안보는 국가 간의 분쟁 또는 전쟁에 집중하는 군사적 안보 개념이 아닌 국가 활동의 전 분야가 안보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정치·군사의 안보 개념이 비정치·비군사적 영역을 포함하는 다변적 개념으로 재정립됨을 의미한다. 전통적 안보가 국가의 안보에 역점이 주어진 개념이라고 하면, 비전통적 안보 개념은 국가 그 자체뿐만 아닌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대상으로 규정해야 할 개념이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의 확장을 의미한다.¹⁶⁾

비전통적 안보 개념은 안보 개념의 확장(Widening)과 심화(Deepening)로 이루어졌다. 안보 개념의 확장은 안보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거나 안보의 위협요인이 발생하는 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보 개념의 심화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안보의 전환을 의미한다. 비전통적 안보 개념은 확장된 안보 영역을 통틀어 포괄하며, 외부 세력과 특수한 요인으로부터의 위협 또는 공격을 받는 것은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유사하다. 확장된 영역의 위협 종류에는 테러, WMD 확산, 마약·무기 밀매, 해적, 질병, 초국가적 위협과 경제, 식량, 환경안보 등의 안보 영역들이 포함된다.¹⁷⁾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개념은 전통적인 정치적, 군사적 분쟁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염병,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위협이 심화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에 경제·사회적 위기가 발생하고

16) 송은희, “비전통 안보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사회과학연구』, 제27권 1호, 2016, pp. 255-256.

17) 김영호, “COVID-19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대비”, 『KIMA-FORUM』, 2020-4, 2020, pp. 75-76.

있으며 해수면 상승, 국토 지형 변화, 이상기후 등은 각종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군사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전통적 안보위협과는 달리 국경선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엄청난 양이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물리적인 공격을 직접 하지 않아도 상대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국경선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둘째, 우방국과 적국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이념의 대립으로 냉전 시대처럼 동서의 양대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하나의 지구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대 시대에는 적국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셋째,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하나의 국가가 독단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 세계를 공포로 내밀었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미국의 9·11 테러, 환경오염이나 쓰나미, 지진 등의 위협은 초국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건 안보의 위협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환경문제와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국가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전통적 위협과 달리 개별 국가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며, 일부의 노력으로 쉽게 대응할 수 없다. 이처럼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가에 미치며 위협의 수준도 매우 심각하고 예상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안보란 국내·외의 현재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외 여건을 조성하는 국가의 정책과 현실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안보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국가이익의 보호(Protection) 측면과 둘째는 국가이익을 확장(Promotion)하는 측면이다. 무한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수동적으로 보호만 하고 있으면 경쟁에 뒤지게 된다. 지속해서 국가이익을 촉진하고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안보 개념이 되고 있다.¹⁸⁾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으나 국가 독단적으로 감당하

18) 김광현,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군 육군의 특수작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1. p. 28.

기 어렵고 마땅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 전 세계에 공포와 많은 사상자를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도 한계가 있었다. 학술적인 차원으로 보면 전통적 안보에 대한 행위자는 국가 또는 국제체제인 데 비해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행위자는 명확하게 지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통적 안보 위협의 관점에서 새로운 위협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예를 들어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나 에너지 안보 등은 국가 중심적 관점에서의 행위자를 특정 지을 수가 없으므로 위협의 구조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위협의 발생, 과급, 해결의 범위 등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상호의존과 비국가 단체의 거버넌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개별적, 분절적인 형태의 위협이 아니라 복합적인 동시에 포괄적인 형태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군의 역할의 필요성, 역할의 범위와 규모, 역할에 관한 규정을 내리기가 모호하다.¹⁹⁾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유형과 범주와 관련하여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범주를 한정하기엔 너무 다양하여 한정된 유형으로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도 감염병,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으로 제시하였지만 명확히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 범주를 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정의는 탈냉전 이후에 초점을 맞춰 발생한 다양한 사건 또는 사고에 관해 전통적 안보 위협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망라하여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동원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세세한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고, 3가지 특징으로 주장하였다. 첫째, 안보 위협의 주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안보가 원동력인데 반면, 국가보다는 개인, 기업, 비정부기구,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가 뚜렷하다. 둘째, 안보 위협의 내용에 있어서는 군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안보라면 비전통 안보는 비군사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다. 셋째, 비전통적 안보 개념 역시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안보 개념과 공통점이 있다.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기본 가정은 비전통적 안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²⁰⁾

19) 부형욱·이강규, 앞의 논문(2012), pp. 58-63.

20) 류동원, “중국의 비전통안보 연구: 위협 유형과 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0, pp. 119-123.

Michael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예는 재난이다. 재난은 위험(hazards), 응급상황(emergencies) 등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미상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매우 유사하다. 재난은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자연 재난(natural disasters)과 인간에 의해 초래되는 인적 재난, 그리고 테러리스트 공격 등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윤태영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핵·생화학적 무기를 포함한 WMD 확산, 탄도미사일 확산, 전자전, 생화학전 지뢰전, 게릴라전, 도시전(urban warfare), 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중요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WMD 확산, 게릴라전 및 도시전, 테러리즘이라고 주장하였다.²²⁾

학자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전통적 위협과는 달리 상반되는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양한 위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에 닥칠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예상할 수가 없다. 그렇듯 현재까지 사회현상과 다양한 변화요인에 따라 현실적인 위협요인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테러 유형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송은희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비전통적 위협 범주와 관련한 설문에 답변을 정리하고,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범주를 분리하거나 재분류했다. 최종 설문에 사용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의 범주는 사이버 공격, 테러, 대형재난, 전력 수급 대란, 국제범죄, 전염병, 인구사회 위기, 식량·자원 위기, 해양 안보, 안전·인적 재난 등이며, 비전통 안보위협 요인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표 2-1>과 같다.²³⁾

21) Sheehan, Michael, *International Security: An Analytical Survey*.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p. 24.

22) 윤태영, “탈냉전기 비전통적 위협의 대두와 미국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戰史(전사)』, 제6호, 2004, p. 318.

23) 송은희, 앞의 논문, pp. 247-262.

<표 2-1> 비전통적 안보위협 우선순위

순위	비전통적 안보위협
1	사이버 테러(국가 차원의 사이버전, 해킹 등 사이버 범죄)
2	테러(기관시설, 대인 테러, 생화학 및 생물테러, 사이버 테러)
3	대형 재난재해(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재난)
4	전력공급 대란(송전선로 건설 갈등, 전력공급 문제, 원전건설의 어려움)
5	국제적 범죄(마약·위폐, 산업 스파이)
6	전염병(코로나, 원숭이두창, 에볼라, AIDS, 각종 감염병 등 인간 안보 요인)
7	인구 위기(고령화 및 저출산, 국내 유입 이주민 다문화사회 문제)
8	식량 및 자원 위기(급격한 에너지 고갈 및 식량 공급 불균형)
9	해양 안보(해적행위 및 해양 범죄, 영토분쟁, 중국어선 불법조업)
10	안전·인적 재난(안전불감증, 부실 공사, 대규모 인적 재난 등)

* 출처: 송은희, 앞의 논문, p. 247.

2.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

영향요인이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영향을 주는 제반 환경과 조건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영향요인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영향’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로 의미하며, ‘요인’이란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를 의미한다.²⁴⁾ 본 연구에서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개념과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변화 등 관련 학자들의 이론적 개념을 반영하였다.

첫 번째,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개념 측면에서 볼 때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① 국내·외적 위협에 대해 ②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가 제 요소의 활동과 ③ 국가이익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두 번째, 기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3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4) 민중서림,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2013, p. 1,759.

25) 김광현, 앞의 논문(2021), p. 30.

첫째, 윤태영은 탈냉전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두, 미국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등 예상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냉전기의 전통적 안보위협은 주권국가에 대한 영토위협과 같은 국경 문제와 이념적 대결 등은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테러, 국제 조직범죄, 마약 밀매, 난민 문제, 해적행위 등의 발생은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백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둘째, 이숙연은 신형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복합적 대응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신형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치명성을 인식하여 국방정책 발전방안을 제언하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치명적인 국내·외 위협으로써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요인이다.²⁶⁾

셋째, 김성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 대응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군 전투력 유지 대책 강구를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변화요인으로 주장하였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군의 대응 역할의 확장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전통 안보위협 중에서 기후변화를 지목하면서 2021년 코로나19와 함께 닥친 기후 위기는 세계를 더욱 위협했다고 주장하였고 기후와 에너지라는 복합적 위협을 요인으로 주장하였다.²⁷⁾

넷째, 김진영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관련 법령과 훈령에 재정립을 요구하면서 군의 역할 분석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군의 역할 정립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변화요인으로 주장하였다.²⁸⁾ 이들의 주장 또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 요인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이익을 유리한 환경과 조건으로 조성하는 것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윤태영, 이숙연, 김성일, 김진영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요인을 ① 국내·외적 위협에 대해 ②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가 제 요소의 활동과 ③ 국가이익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한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첫 번째 요

26) 이숙연, “신형 비전통 안보위협과 한국의 국방정책: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복합적 대응”, 『국가전략』, 제28권 4호, 2022, pp. 48-56.

27) 김성일, 앞의 논문(2022), p. 1-5.

28) 김진영,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 연구: 재난분야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6권 3호, 2020, pp. 97-103.

인은 해당 국가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장환경 요인이다. 결국, 냉전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전통적 국가안보의 확장개념으로 국가안보의 단위는 국가였다. 그리고 최근 통상 불안과 안보의 지리적 범위는 국경선에 기초한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국경선의 영역이 아닌 불규칙적이며 무분별하고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 둘째,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국내·외 그리고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위협인식 요인이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지난 몇 년 발생한 비전통 이슈들은 국내·외에서 주는 위협들은 상당히 빈번하고 치명적이었다. 그중에서도 테러, 감염병, 대형재난, 기후변화 등 전 세계 및 한반도를 강타해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은 절실하고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분석하여 대응하려는 위협인식 요인은 필요하다. 셋째,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영향요인은 통수권자의 의지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군사전략 등을 포함한 대응의지 요인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도출된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을 <표 2-2>와 같이 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로 선정하였다.

<표 2-2> 비전통적 안보위협 영향요인

· 전장환경	· 위협인식	· 대응의지
--------	--------	--------

* 출처: 김광현·김법현, 앞의 논문(2020), p. 13.을 참고하여 선정함.

전장환경이란 작전 요소가 배치되고 전투 활동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야군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기 위해 전투력이 운용되는 시간적·공간적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전장환경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으로 국제정세, 국내정세, 과학기술의 발전, 전쟁 양상 등이 포함된다. 위협인식은 위협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적의 위협 변화를 포함하여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인식에 따라 다양한 대책과 대안을 모색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의 확대, 구소련의 붕괴, 9.11 테러 공격 등으로 위협이 변했고, 직접적인 위협과 국가 주변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잠재적 위협 등이 변화하면서 국방도 변화했다. 대응의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협에 대한 총력전 수행을 위해서 통수권자의 의지와 군사전략, 군사혁신(변혁)을 포함하여 국가 내부의 지키고자 하는 의지이며 본질적인 요인이다.

즉 대응의지는 국가 위협에 따른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국가통수권자의 확고한 의지이다. 또 국가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는 군사 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혁신을 통해 달성되어 진다.²⁹⁾ 따라서 전통적 안보 위협의 확장개념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한 국가의 전장 환경, 위협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의지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3.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특수작전부대의 관계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을 이론적 개념과 일부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선정된 3가지 영향요인과 특수작전부대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장환경은 탈냉전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발생 및 증가함에 따라 특수작전부대의 대응은 다양했다.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다양한 유형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요구로 현장에 즉시 투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되는 전장환경에 따른 특수작전부대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특수작전부대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병력 및 단순한 도구를 활용한 지원 및 대응을 수행해 왔다. 반면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특수작전부대도 진화 및 발전이 요구되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내외 테러,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발전하게 되었다. 해외 이동의 자유, 인구집중 현상, 교통수단의 도약적인 발전 등 과학기술의 진보는 전장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국제 안보 변화 및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포함한 전장환경은 특수작전 대응에 영향을 끼쳐왔다. 결국 전장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작전부대의 전투수행도 변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위협인식 면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특수작전부대의 관계는 탈냉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념적 대립의 구도가 팽창했던 냉전 시대가 구소련의 붕괴로 종식되었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테러 사건으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가 테러 세력인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이 범행한 9·11 테러를 시작으로 미국의 본토 위협에 대한 대비 및 각종 불확실한 위협이 증가하였다.

29) 김광현, 앞의 논문(2021), pp. 31-32.

이처럼 위협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체계에 따라 적에 대한 대상과 목표가 달라지며 국가(정부)와 군의 대응도 달라진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양한 위협의 변화를 포함하고 특수작전부대의 대응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특수작전부대는 군사전략 목표와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군이 통합하거나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문제를 군사적인 측면으로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 위협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사고에 따라 대응 방안이 변화 및 전환되었다. 따라서 특수작전부대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특수작전부대 대응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특수작전부대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 중에서도 아덴만 여명작전, 세월호 탐색구조작전, 코로나19 대응작전, 미라클작전 등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특수작전부대는 전통적 안보위협 대응보다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가에 따른 위협을 먼저 인식하고 최적의 조치로 대응하였다.

셋째, 대응의지는 군사전략 및 통수권자의 의지, 군사혁신(변혁)을 포함하여 특수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군사전략을 통하여 현장에서 구현된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 특수작전은 강한 민감성·정치성을 포함하며 통수권자의 의지를 활용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강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채택할 수 있는 대응의지가 제한된다. 따라서 특수작전은 국가의 정치·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임무를 수행하며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국가(군)의 대응의지는 특수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³⁰⁾

이처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군)의 대응의지는 특수작전부대가 대응했던 아덴만 여명작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왔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은 특수작전부대의 대응 전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김광현, 앞의 논문(2021), p. 33.

제2절 특수작전 및 전법

1. 특수작전 개념 및 특징

특수전(Special Warfare)이란 제한전과 전면전 상황에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요원들로 수행되는 비정규전과 대(對)비정규전 그리고 심리전 등을 총망라한 군사적·정치적 준군사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³¹⁾ 특수작전이란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정규군 투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군사, 외교, 정보, 그리고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대적이거나 거부된 지역, 또는 민감한 환경 속에서 수행되는 군사작전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작전은 주로 은밀하고 비밀을 유지한 가운데 신중한 능력 발휘가 요구된다. 이 작전은 군사작전의 전 범주에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용되거나 또는 정규군 및 여타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특수작전부대가 직접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또는 대체 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 특수작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규 군사 활동과 차이가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높은 물리적, 정치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독특한 작전 기술 및 운용, 아군의 지원 제한이 있다. 셋째, 세부적 작전 정보 및 작전지역 현지 자산이 특수작전과 정규 군사 활동의 큰 차이점을 갖는다.

또한, 특수작전이란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특수한 작전’을 말한다. 한마디로 정규 병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정규 병력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특수작전이다.³²⁾ 이러한 정의들은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현대적 특수작전의 면모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 육군교리 3-05 특수작전 교범(JP 3-05)³³⁾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운용방식과 전기, 전술, 절차, 그리고 장비에 있어 특수한 형태를 요구하는 작전으로 적대적 또는 거부되거나,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경우도 많다. 긴급성, 은밀성, 토착 세력과의 협력, 작전지역에 대한 많은 지식과 문화적 전문성 요구, 그리고 고도의 위험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31) 최용성, “개릴라전 양상의 변화과정 고찰”, 『戰史(전사)』, 제6호, 2004, p. 34.

32) 양욱, 『세계의 특수작전 I』,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p. 16.

33) 특수전사령부, 미 육군교리 3-05, 『특수작전 번역집』, 2019, p. 용어풀이-3-3.

따라서 특수작전부대의 특수작전은 일반적인 군사작전과는 완벽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수작전은 <표 2-3>과 같이 8개로 특징지을 수 있다.

<표 2-3> 특수작전의 특징

· 정치성	· 비정규성	· 기밀성	· 단순성
· 폭력성	· 합동성	· 민간과의 결합성	· 고도의 지원

* 출처: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최근 외국군 사례를 통한 한국군 특수임무 수행의 발전방향 연구』, 2016, pp. 5-8.

위에 제시된 특성을 감안한다면 특수작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특수작전이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정치·전략적으로 중요한 표적에 대하여 비정규적인 편성부대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필요시 민간의 지원과 전문 인력까지 동원하여 은밀하게 육·해·공군 합동 군사력을 투사하는 작전이다.³⁴⁾

특수작전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개인적인 해석과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특수작전의 유형도 한미 양측 간 다른 이유는 지속적인 국방환경 변화와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작전의 개념과 유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특수작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특수작전이란 전략적 가치와 자산을 보유한 특수작전부대가 이를 수행하며, 전통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전략적·작전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 통수권자의 결심에 선택 범위를 넓혀주는 군사작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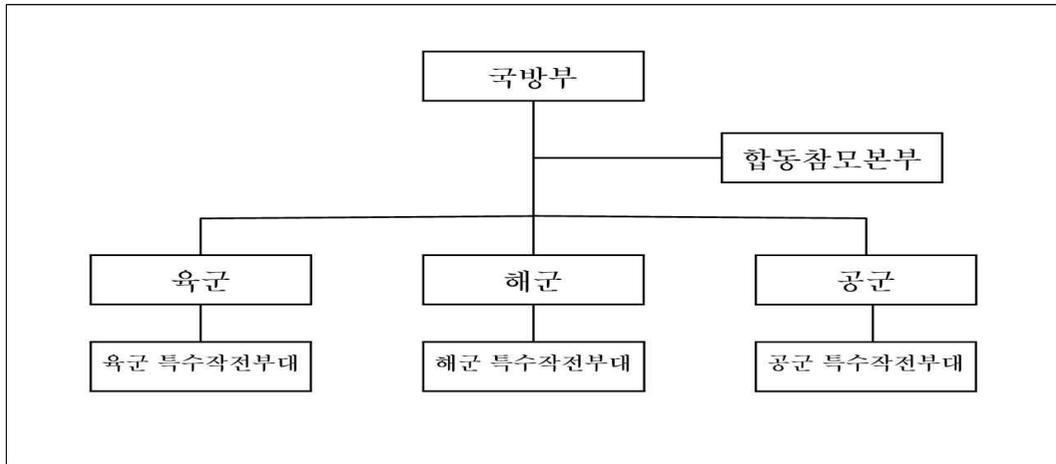
2. 특수작전부대 편성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공식적인 정보 제한과 보안 문제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밝힌 특수작전부대의 조직현황을 인용 및 재정리하였다. 한국군 특수작전 조직은 미군과 달리 통합특수작전사령부가 미편성되어 현재는 각 군 특수작전부대로 구성이 되어있다. 국방개혁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특수작전부대의 역할이 기계화 중심과 자국민 우선 보호보다 넓은 임무로 증대될 것이 예상되나 현재는 기계화 작전 중심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현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조직편성을 도

34)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최근 외국군 사례를 통한 한국군 특수임무 수행의 발전방향 연구』, 2016, pp. 5-8.

식화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한국군 특수작전부대 조직도



* 출처: 임길봉, “미군 특수전 조직과 방법의 한국군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 79.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미군 특수작전사령부와는 달리 육·해·공·해병대 각 군에 편제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각 군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편성은 각 구성군의 임무에 맞춰 편제되어 있다. 또한, 각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작전부대들은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조직편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육군의 특수작전부대로 한정하고자 한다.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6·25전쟁 중 8240부대를 현 특수전사령부의 기원으로 휴전과 함께 8250부대로 통합되었다가 해체되었다. 미국은 한국군의 특수부대 창설을 위하여 군사고문단을 동맹국에 파견하였다. 동맹국이 스스로 대게릴라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도움을 주었다.³⁵⁾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임무를 수행하는 게릴라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는 8240부대처럼 훈련받은 유격대원들이 최적이었다. 이에 따라 1958년 4월 1일 육군은 한국전쟁 시 게릴라전을 수행한 8240부대 출신을 근간으로 1전투단을 창설하였다.³⁶⁾ 이후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35) Cheryl A. Walley·Charles H. Briscoe, “SF Detachment 39: SFLE in Korea”, Veritas, Vol 2 No 1, 2006, p. 39.

36) 남승훈·고태식, “특전사 기원의 재조명: 8240부대의 유산과 과제”,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

지속적인 조직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현재는 특수전사령부는 특전여단, 특임여단, 국제평화유지단, 707대테러특임단, 특수작전항공단을 포함하여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평시에는 국내·외 대테러작전 수행과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해외파병 활동, 대형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부대 임무 수행을 하고, 국지전 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대비 작전을 수행한다. 전시에는 북한 중심지역에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핵심표적에 대한 특수작전과 북한 정권과 군의 통제력 약화를 위한 비정규전 작전을 수행한다.³⁷⁾

3. 특수작전 전법

전법(戰法, How to fight)은 일반적으로 ‘전쟁 또는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군사적 용어로는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을 의미한다. 또는 ‘군사전략 및 전술과 밀접히 관련된 가용부대의 종합적인 전투 방법을 규정하며 술과 과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³⁸⁾

이러한 전법은 전·평시의 구분이 없는 모호한 현대전에서 무기체계의 끊임없는 발전과 함께 전법도 개념적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또한 전법은 전략 차원, 작전적 차원, 독자적인 전술 차원에서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법은 주어진 작전환경에 따라서 변화·발전되어 왔다.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법의 범주는 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 유·무형 전투력 등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 중에서 전투력 발휘의 기본요소를 유형적으로 크게 나누고 가시화할 수 있는 대응개념과 조직편성, 무기체계 세 가지 요소로 선정하였다. 비전통적 안보위협 유형인 대테러작전 전법도 이를 준용하여 대응개념, 조직편성, 무기체제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특수작전부대가 비전통적 안보위협, 특히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법은 <표 2-4>와 같다.

151집, 2021, p. 137.

37) 임길봉, “미군 특수전 조직과 방법의 한국군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 79.

38) 조지연, “용병체계”, 육군대학연구자료, 1986, p. 217.

<표 2-4> 특수작전 전법

· 대응개념	· 조직편성	· 무기체계
--------	--------	--------

* 출처: 김광현·김법현, 앞의 논문(2020), p. 13.

첫째, 대응개념은 전략에서부터 작전, 전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투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작전수행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대응개념은 다양한 특수작전을 계획·준비·실시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편성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직화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성 및 발전되고 쇠퇴 및 사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편성은 내·외의 변동 조건에 적응하고 유연해야 한다.³⁹⁾

셋째, 무기체계는 “지난 100년간의 기술 발전이 인류 발생 후부터 1900년대까지의 발전을 능가할 정도로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빠르다.”⁴⁰⁾라고 주장할 만큼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전쟁 수행을 위한 기본적 수단인 전략 및 전술, 인원, 무기, 시설, 소프트웨어,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무기 운용 체계⁴¹⁾이며, 이러한 무기체계는 미래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전쟁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따른 전투 수행개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39) 오석홍,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2020, p. 67.

40) 최윤대, 『군사과학기술』, 서울: 양서각, 2005,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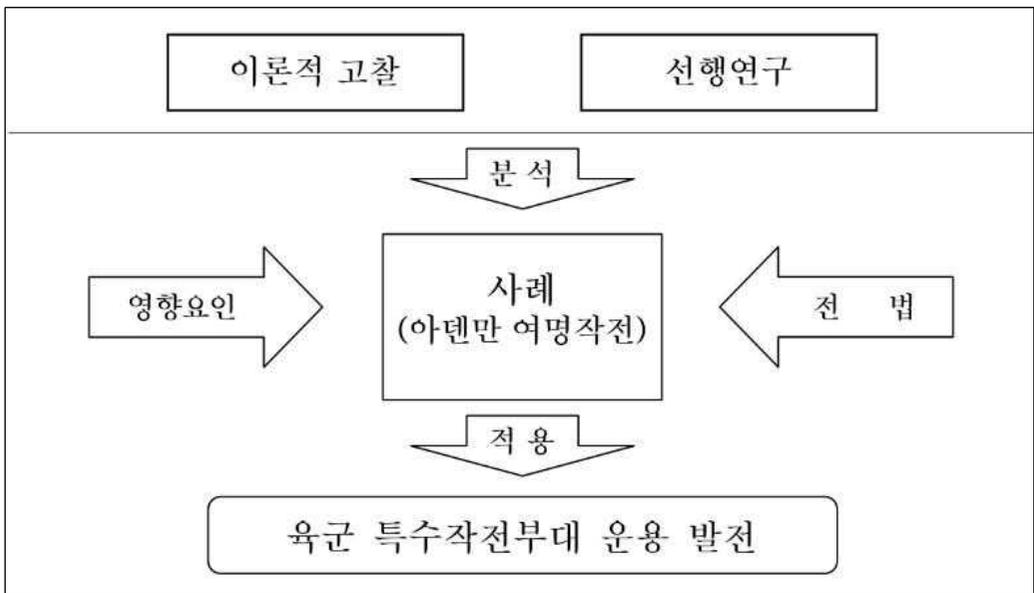
41) 합참, 『합동·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p. 166.

제3절 분석의 틀

본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특히 테러에 대응한 특수작전부대 운용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논리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특수작전의 개념 및 특성을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안보 측면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 영향요인을 국가안보론을 기초로 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특수작전 전법은 대응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로 세분화하여 전법을 구체화하였다.

테러의 영향요인과 특수작전부대 대응의 전법을 최근에 성공적으로 대테러작전을 수행한 아덴만 여명작전 사례를 분석하여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른 특수작전 전법을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한 영향요인과 전법을 육군 특수작전부대에 적용하여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테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의 발전방향을 특수작전 전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분석의 틀로 제시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분석의 틀



제3장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적인 사례분석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변화 및 진화하면서 이에 대한 특수작전부대의 전법도 발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특히 테러의 영향요인과 특수작전 전법의 관계를 분석하여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테러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군 특수작전부대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제1절 작전 개요

아덴만 여명작전(Operation Dawn of Gulf of Aden)은 2011년 1월 15일 아브디리스크에 샤크가 이끄는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화물선(1만 톤급)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해 같은 달 18일 대한민국 해군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통칭 청해부대)가 시행한 해상작전이다.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주도 아래 미국, 오스만, 파키스탄 등 항구적 자유 작전에 참여 중인 국가의 함정 및 병력이 작전을 지원하였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해군 특수작전부대(청해부대 6진) 30명이 탑승했던 최영함은 덴마크 피랍선박 구출 작전 지원을 위해 기동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종료되어 함참에서는 지부티로 이동하여 군수 물자를 적재하고 차후 임무 수행에 준비하라는 지시에 지부티로 향하였다. 최영함은 밤낮을 항해하여 2011년 1월 15일 세계 주요 해상 병목지점의 하나인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Bab al Mandab) 해협 인근에 있는 지부티로 입항을 하던 중 대한민국 선박 삼호주얼리호가 지부티에서 2,600km 떨어진 오만 동남방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다고 보고 받았다.⁴²⁾

이후 함참으로부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출 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명령이 청해부대로 하달되었다.⁴³⁾ 이후 청해부대는 전투준비태세를 재점검하였고 핵심 참모 모두가 참여하여 구출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적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보참모가 분석을 통하여 AK 소총과 기관단총, 대전차 로켓포(RPG-7)를 보유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구출 작전의 수행 방법은 헬기에 의한 단독 기습공격, 특수작전팀이 고속보트(RIB)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은밀한 기습 등반 공

42) 최영주, 『아덴만 여명작전 현장 전투 실화』, 서울: 익투스, 2022, p. 144.

43) 최영주, 위의 책(2022), p. 150.

격, 링스헬기의 근접 엄호를 받으며 특수작전팀이 선박 등반 공격 등 세 가지가 검토되었다. 그 결과 당시 상황에서 가장 부합하고 청해부대의 능력을 활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링스 헬기 근접 엄호 아래 특수작전부대의 선박 등반 공격을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받기로 했다.⁴⁴⁾

정부는 15일 피랍 발생 시간부터 국가 위기관리센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상황점검 회의를 시행했다. 외교부는 별도의 피랍대책본부를 주케냐 대사관에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⁴⁵⁾ 인질 소탕 관련 사항들은 미군 당국과 대해적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 Combined Maritime Forces)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험을 감수하고 삼호주얼리호의 피랍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해적소탕 작전을 결정하였다.⁴⁶⁾

특수작전팀은 해적과 접촉하여 현지 시각으로 1월 18일 15시 24분에 1차 구출을 시도하였으나 해적들이 거짓으로 투항하려는 척하다가 사격을 가하자 총상을 입고 작전을 중지하였다. 이후 납치 6일 만인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작전팀의 급습으로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동시에 인질 21명(한국인 8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을 전원 구출하여 작전에 성공하였다.⁴⁷⁾

44) 최영주, 앞의 책(2022), p. 160.

45) 이우승, “삼호해운 선박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세계일보』, 2011년 1월 16일.

46) 이승우, “국가위기 대응 결정과정 연구: 아덴만 여명작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 36.

47) 김성만, “아덴만의 여명작전과 군 통수권자의 결단”, 『KONASENT』, 2011년 1월 28일.

제2절 테러 영향요인

1. 전장환경

전장환경이란 복잡하고 불확실한 공간에서 전투력을 운용하는 시공간적 상황을 의미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에 최대의 이점을 제공하는 요인이다. 시대적 상황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군의 작전개념 발전 등을 기초로 군사력이 수행되는 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장환경은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며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법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러의 영향요인 중 전장환경이 어떻게 해군 특수작전부대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아덴만지역 해적 활동 증가와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가. 해적활동 환경조성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명명한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은 해군 특수작전부대에 의해 전격적으로 수행됐으며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해적 출몰이 심각한 국제문제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는 해적소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부 아덴만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해운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해적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이것은 해상수송로에 대한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악화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난이 더욱 증가할 경우, 해적의 활동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적 활동은 2000년대에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해적은 동중국해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말리아 지역의 해적 사건 발생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해적 사건 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세계	329	276	239	263	293	406	445
소말리아	10	45	20	44	111	217	49
동중국해	158	102	83	70	54	45	4

* 출처: ICC-IBM,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nual Report*, 31 January 2009, pp. 5-6.

소말리아 해적은 인근 해역뿐만 아닌 인도양 해상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점차 인질 산업이 번창하면서 신종무기로 중무장하여 조직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해적행위가 지속 기승을 부리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전 상황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로 정치적 혼란과 중앙정부의 통제 능력 상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말리아에서는 해적을 단속하고 사법처리할 주체가 없으며 정부도 내전에 휩싸여 있어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연안어업 붕괴로 인해 지역 경제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해적의 최초 등장은 1990년대 후반으로 당시 소말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 이하의 빈민국 중 하나였다. 셋째, 해적들이 수익 수단으로 목표물(선박)을 쉽고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소말리아의 지리적 특징으로 3,300km의 긴 해안선을 끼고 있어 바다와 접근이 쉽고 이 지역은 한국 해운 물동량의 30%가 이곳을 통과한다. 넷째, 해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독자적 정보력과 대응책으로 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⁴⁸⁾ 또한 해적들의 활동 배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삼호드림호는 2011년 1월과 2014년 4월에 공해상에서 납치되었다. 이에 따라 연합해군사령부 예하 각국의 군함들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 파견되자 해적의 테러 행위는 인도양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해적들은 해적행위를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수단과 방법 등은 발전하고 있다.

전장환경은 측면에서 보면 소말리아 해역을 통해 항해하는 선박의 수와 무역 거래는 증가하였으나 소말리아 주변 국가들의 경제력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이 소말리아 해적들의 해적행위도 지속 변화하고 있다. 즉 ① 과거에 개인적 영웅심과 고·중세 신화적 단체조직에서 발전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해적행위 주체로 발전되었다. ②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부족 간에 패권 장악을 위한 힘의 경쟁이 있고,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무력 시위와 같은 정치성향의 표출로 발전되었다. ③ 해적의 무기체계 수단이 발전되었다. ④ 해적 수위와 행위의 스펙트럼(spectrum of the piracy)은 다양화되고 있다. ⑤ 국제해협과 대운하로 인접한 해역에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적 피해 범위, 규모의 증가 및 확대 등이 최근 해적행위의 변화된 모습이다.⁴⁹⁾

나.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아덴만 여명작전은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해적들의 테러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

48) 이만중, 앞의 책(2015), pp. 429-431.

49) Martin N. Murphy. *Small Boats, West States, Dirty Money: Piracy and Maritime in the Morden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p. 40.

응하면서 테러 행위의 양상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덴만 해역뿐만 아니라 테러에 대응하는 전 세계 국가들은 최신에 전투함을 이용하는 대규모 해전보다 소형로켓과 소총 등으로 무장한 소규모의 해적들이 불법적 소행을 자행하고 있는 해적행위에 골머리를 앓았다. 선박이 해상에서 항해 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위 유형으로 가장 전형적 형태인 해적, 해상 무장 강도, 정치적 성격과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해상테러가 있다.⁵⁰⁾ 그 외에도 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 화물을 훔쳐 가는 절도형과 강도형이 있다.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가능한 해적행위는 카누와 같은 보트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접근하고 장비, 소지품, 화물 등을 훔쳐 도망가는 절도 형태의 침투양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당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항해하는 선박을 습격하여 위협하면서 인질을 납치하고, 선박을 빼앗는 수법으로 소말리아 해적들의 대표적 형태이다.⁵¹⁾ 이러한 해적 사건이 발생은 <표 3-2>와 같이 2004년 이후로 전 세계의 다양한 해역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2> 한국인 선주 및 승선 선박 소말리아 해적피랍 현황

일 시	선박명	피랍 내용
2006. 04. 04	동원호 628호 (원양어선)	소말리아 해역 조업 중 피랍 2006년 7월 30일 석방(피랍 117일 만에 석방)
2007. 05. 15	마부노 12호 (원양어선)	2007년 11월 4일(피랍 173일 만에 석방)
2007. 10. 28	곤들노리호 (일본 선적)	한국 선원 2명 탑승, 1명은 당일 탈출 2007년 12월 12일(납치 45일 만에 석방)
2008. 09. 10	브라이트루비호	한국인 선원 8명 탑승 2008년 10월 16일(납치 37일 만에 석방)
2008. 11. 15	캠스타비너스호 (일본 선적)	한국인 5명 탑승 2009년 2월 15일(납치 88일 만에 석방)
2010. 04. 04	삼호드림호 (원유 운반)	11월 7일 석방(피랍 217일 만에 석방)
2010. 10. 09	금미 305호	회사파산 협상 난항 납치 123일 만에 석방
2011. 01. 15	삼호주얼리호 (화학 운반선)	2011년 1월 21일(납치 6일 만에 석방) 해군 특수작전부대에 의해 구출

* 출처: 이만중, 앞의 책(2015), p. 429.

50) 김강녕, “최근 소말리아 해적 발생현황과 대응방향”, 『한국테러학회』, 2009, pp. 30-31.

51) 이만중, 앞의 책(2015), p. 424.

이러한 해적행위의 증가에 따라서 유엔안보리는 2008년 외국 정부가 아덴만 해적 퇴치를 위해서 소말리아 영해에 들어가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4개를 채택 통과시키면서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바레인에 연합해군사령부(CMF)가 구성되어 아덴만 연안에서는 지부티 항과 오만 살랄라 항에 기지를 두고 연합국가에서 파견된 초계기, 함정 등이 해적소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해부대를 비롯한 약 40개 국가의 연합군이 연합해군사령부(CMF) 지휘 아래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며 호송하고 있다.

또한 UN산하의 국제협의체인 소말리아 퇴치 연락그룹(CCPCS: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도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매년 3~4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⁵²⁾ 이러한 연합해군의 창설을 통해 지휘구조 측면에서 연합 및 합동성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해군도 제151연합임무대(CTF-151)의 명령체계를 받고 3,000톤급 이상 구축함 1척과 링스헬기 1대를 작전에 투입하였다. 무엇보다도 해군 특수작전부대 대원들이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소말리아 해역 호송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전장환경 측면에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국내 선박과 선원이 피랍되는 등 국내 선박의 안전 향해와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로 인해 한국 해군은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해상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연합해군사령부(CMF) 통제하에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위협인식

아덴만 지역 해적들의 테러 위협, 테러단체의 연계 가능성과 테러단체의 공격 방법과 수법의 다양성 등 위협이 변화함에 따라서 특수작전부대의 위협에 대한 인식

52) 연합해군사령부(CMF: Combined Maritime Forces)는 여러 연합군이 있지만 바레인 사령부 안에 주요한 3개의 작전군이 있다. 즉, CTF-150, CYF-151 및 CTF-152이다. CMP는 중동지역의 국제해역 650만km에 걸쳐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키는 다국적 해군협력체이다. 주 임무는 해적 예방, 대테러, 불법 안전해양환경과 활동저지에 주안을 둔다. CTF-150은 2001년 10월에 창설되었으며 아덴만과 오만만, 홍해 및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해양안보작전(MSO: Maritime Security Operation)을 수행한다. CTF-152는 2004년에 창설되었으며 중·남부 페르시아만을 주 책임 지역으로 설정하여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국가의 파병부대 작전 범위는 원칙적으로 아덴만 주변으로 특히, 국제 안전항로인 국제권고 통항로(IRT: Internationally Recommended Transit Corridor)일원이다. 예외적으로 소말리아 동쪽 해안도 작전지역 범위가 될 수 있다. 연합해군은 자국의 선박호송과 해양안보작전(MSO: Maritime Security Operation)을 수행하고 있다.; 이만중, 앞의 책(2015), p. 413.

도 변화하였다. 해적들은 해상의 선박을 납치 및 폭파하거나 선박시설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테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박의 납치과정에서 선장 및 선원을 살해하기도 하고 정박 중인 선박이나 항구를 폭파하였다. 해상 선박 테러와 같은 해상테러는 항공기 납치와 같은 항공 테러에 비해 성공률이 낮고 선전효과가 낮아 198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소말리아 인근 해적들에 의한 해상테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⁵³⁾

해적의 출현이 잦은 아덴만 해역은 과거 해상테러 사건이 많았던 지역이다. 2000년 10월 예멘 아덴만에서 정박 중인 미국의 신형구축함 콜(Cole)호가 폭탄을 탑재한 소형 선박으로부터 공격받아 승무원 1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2002년 10월 프랑스 대형유조선인 랭부르(Limburg)호도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기름유출과 승무원 3명이 사망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해상테러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지속적 증가에 따라 두 번째 영향요인인 위협인식은 소말리아 해적의 테러 위협과 테러단체 연계 가능 위협 순으로 분석하였다.

가. 소말리아 해적의 테러 위협

소말리아 해적이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등장한 시기는 2000년 후반부터이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테러 행위는 2008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중에서 피해 선박의 약 90%는 소말리아의 인근 해역을 이동하던 선박이었다. 연합해군사령부는 2010년 12월까지 총 26척의 선박과 613명의 선원을 소말리아 해적이 억류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이 소말리아 해역에 전투함을 파견하여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해적행위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선박들은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당하였다. 또한, 예멘,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경우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으로 미개척된 산유국의 석유 사업 및 플랜트 공사 수주 등에 따른 해외 근로에서 오는 열악한 치안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군의 해외파병에 따른 불만 세력들의 테러 공격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하고, 해외여행 및 국민 경제 성장에 비례하여 다방면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횟수가 심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 테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⁵⁴⁾

53) 조순구, 『국제문제의 이해: 지구촌의 쟁점들』, 서울: 범문사, 2007, p. 272.

선박 테러는 선박을 이용한 화물·여객 수송 등 해상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테러로, 테러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테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첫째, 항해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다. 둘째, 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갈취하거나 선박의 항해를 강압하는 행위이다. 셋째,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해서 선박의 주요 기능이나 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기능장애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소말리아 해적의 테러 유형

공격대상	유 형
항공기	항공기 폭파, 항공기 납치, 항공기 충돌
선박	선박 폭파, 선박 납치, 선박 충돌
주요인물	인질 납치, 요인 암살
무작위	무차별 총격 테러

* 출처: 국가정보원 테러정보종합센터, “최근 테러의 대상·수법·수단 분석”, 2005, pp. 3-12.

이러한 해적의 규모는 연구자의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명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상에서 직접 해적행위를 하는 해적은 일일 기준으로 평균 약 300명 규모이다. 그리고 해안에 거주하는 예비조직은 약 1,2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육지에서 주둔하는 지도부와 통역과 감시를 담당하는 지역 주민까지 합하면 규모는 약 3,000~5,0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⁵⁴⁾

소말리아 해적들은 각종 화기로 무장하고 있다. 해적들의 화기로는 개인별 AK-47, M-16을 운용하고 있으며, RPG-7, M-60까지 사용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모가디슈의 불법 무기 시장에서 총기류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적들은 해상 GPS와 단거리 통신장비를 사용하면서 대상 선박에 침입하기 위해서 승선용 사다리를 휴대하고 있다.⁵⁵⁾

54) 권순구, 『한국 대테러학: 위협과 대응』, 서울: 범문사, 2018, p. 123.

55) 박세길, 『청해부대 4진 귀국보고서』, 서울: 국방대학교, 2010, pp. 5-10.

56) 손경호, “청해부대 대해적 작전의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국방연구』, 제55권 1호, 2012, p. 85.

이를 종합해 볼 때 소말리아 해적은 지속적인 경제적 불안과 국제적 질타에 불만을 품고 있다. 또한 연합해군사령부의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력을 키우면서 해적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해적들은 불법 무기 수입과 소지, 사용 등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선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 특수작전부대 대응에 큰 위협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테러단체와 연계된 위협

소말리아 해적단체들은 UN과 한국 정부에 반감을 갖고 또다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말리아 해적이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소말리아 해적은 기업형태로 네트워크화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 테러단체의 근거지로 될 가능성도 있다. 소말리아 해적행위가 국제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⁵⁷⁾

국제 테러단체와의 연계 가능성은 미국이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일부 테러 단체들이 연합하여 해상테러를 공공연히 천명하면서 테러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소말리아인은 생계를 위협받다가 해적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해적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다. 총기를 소지하고 무기를 사용하면서 이들이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 조직의 요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또한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국제 테러 조직에 인질 석방 등 불법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단체의 하나인 ‘알 샤바브(Al-Shabaab)’는 무장단체로 성장하여 2008년 2월 미 국무부에 의해 국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실제로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이 테러단체로 현금이 유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⁵⁸⁾ 유럽연합해군은 2010년 11월 요트로 항해 중에 납치된 남아프리카 선원 3명을 알샤바브가 장악한 바라와에서 구출하기도 했다. 최근 소말리아 인근의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선박과 탑승한 선원에 대해서 일시적 억압 또는 금품 요구 형태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9·11테러를 통해서 확인된 사례로 항공기가

57) 이만중, 앞의 책(2015), p. 433.

58) 김강녕, 앞의 논문(2009), p. 53.

테러의 무기로 이용된 것처럼, 유조선과 같은 대형 선박 등을 납치하여 상업 해운로를 봉쇄하고 항구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⁵⁹⁾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은 인근 유럽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해운망의 파괴를 거리낌 없이 시사하고 있다.

해적들은 국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테러단체의 본거지와 근접한 아덴만에서 국제 테러 조직과 소말리아 해적들이 상호 연계될 가능성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적단체들을 단순히 해적행위의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나 조직화한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보복성 테러를 가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위협인식의 두 번째 세부 요인인 테러단체의 연계 가능 위협은 단순한 선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테러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유로 아덴만 해적들도 급격히 성장하고 증가했다. 체계적이고 조직화 된 테러 집단의 규모가 지속 성장할수록 해상수송로에 대한 위협은 증가하였고 이는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대응의지

비전통적 안보위협 영향요인인 전장환경과 위협인식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 및 진화하면서 정부와 군의 대응도 변화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아덴만 여명작전 시 전장환경과 위협인식이 특수작전부대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의지는 전장환경 변화와 위협인식에 따라서 현장의 청해부대와 정부가 해적 소탕에 임하는 의지와 준비를 의미한다. 이를 청해부대의 연합전력 운용과 정부의 확고한 대응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연합전력 운용

청해부대는 2,600km 떨어진 오만 동남방 해상에서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지부티 항에서 입항하자마자 함장은 작전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상황 조치에 들어갔다. 이어서 청해부대가 위기에 처하자 연합해군사령부에서 적극

59) Adam J. Young & Mark I. "Valencia, Conflation of Piracy and Terrorism in Southeast Asia: Restitute & Utility", 25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 2003, p. 32.

적인 조치로 삼호주얼리호 피랍 현장 인근에 연합해군 함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연합해군사령부의 미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Lincoln)’의 F/A-18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피랍 현장에 투입했다. 이는 최단 시간 내에 피랍 현장의 상황 파악과 동시에 해적들에 연합해군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대(對)해적 작전을 시작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조치에는 해적에게 공포감을 주어 도주를 유도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수작전부대가 작전지역에서 즉각 투입이 제한되기에 먼저 연합전력 운용을 통한 작전을 준비하였다.

첫째, FA-18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연합자산의 투입으로 공중 위력을 과시하면서 소말리아 해적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F/A-18의 다양한 능력으로 실시간 정보를 획득하여 연합해군사령부와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었다.

둘째, 미 해군의 P-3C는 정찰을 통해 청해부대는 작전 투입 전 삼호주얼리호에 탑승한 해적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연합사령부 예하의 다양하고 과학화된 정찰자산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셋째, 정보수집은 미 해군 자산의 공중 정찰과 최영함의 해상 정찰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은 높아졌다. 미 해군 P-3C의 항공정찰 정보를 수신받았다. 이후 최영함의 적외선(IR: Infra Red) 카메라를 통해 미 P-3C의 정보를 면밀하게 검증하였다. 이처럼 실시간 정보는 아군의 작전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즉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아 작전에 유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테러 진압에 임하기 전에 연합전력인 미군, 오만 함정 등과 협조하여 해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고, 미 F/A-18과 P-3C의 항공 자산의 긴급 투입하였으며,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국가 간 연합작전 준비와 예행연습 등을 통해 소탕작전을 준비하였다.

나. 정부의 확고한 대응의지

정부는 단호하고 확고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을 일소하고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강한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 전인 2010년 4월 삼호드림호가 해적에 피랍되었으나 구조작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사건 발생 217일이 지난 2010년 11월 6일에 950만 달러를 지불하고 풀

려난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은 절대로 해적들과 타협하지 않기로 정부는 결정했다.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군사작전을 감행하였다.⁶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해군 특수작전부대의 대응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도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응의지는 현장의 청해부대와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연합해군사령부 통제하에 해적 소탕을 위한 연합작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 의지를 확고히 실행하기 통수권자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대응의지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특수작전부대 육성과 빈 라덴 암살작전 등은 미 통수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美 통합특수작전사령부 예하에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 편성된 것도 백악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수권자의 의지는 특수작전부대에 의해 실현되며, 다양한 여건조성작전을 통해 결정적작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덴만 여명작전은 정부의 확고한 대응의지가 해군 특수작전부대의 대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60) 이승우, 앞의 논문(2016), pp. 36-40.

제3절 특수작전 전법

1. 테러 대응 개념

가. 연합작전 수행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진이 파병된 이래 소말리아 해역에서 펼쳐진 연합 대해적 작전을 참가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 장성이 대해적 작전부대(CTF-151) 사령관을 맡아 연합전력과 공고한 신뢰를 구축했다. 청해부대의 이러한 노력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성공요인이었다. 당시 지부티에서 사건 발생 현장까지 1,330마일로 이동시간만 2일 이상인 56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청해부대 현장에 도착 전까지 미 항공기 F/A-18 및 P-3C와 영국의 링스헬기가 삼호주얼리호 주변을 초계하였다.⁶¹⁾

연합해군사령부 CTF-150 소속의 F/A-18 전투기와 P-3C 해상초계기는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삼호주얼리호의 위치 및 이동상황, 해적 동태 등을 청해부대에 실시간 제공했다. 미구축함의 해상작전 헬기(SH-60)는 중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오만 병원으로 후송해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케 하였고, 미 군수지원함은 지부티를 긴급 출항한 최영함이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류를 공급해 줬다. 인도양에서 작전 중이던 파키스탄 해군 함정은 청해부대가 피랍 해역에 도착할 때까지 삼호주얼리호를 근접 추적·감시하며 정보를 제공했다. 오만 해군도 전 작전 동안 경비함을 지원해 청해부대 외곽에서 삼호주얼리호로 접근하는 선박을 감시·차단했다.⁶²⁾ 유기적인 연합작전을 통해 1월 21일 05:17분 작전을 개시하여 05:29분 선원들에게 인질 구출 작전을 시작한다는 교신을 한국어로 보낸 뒤 링스헬기가 K-6로 선박 레이더와 안테나를 공격하면서 적들이 당황하는 사이 공격팀이 06:15 삼호주얼리호에 진입하였다.

이후 함교와 격실을 차례대로 장악해 가면서 청해부대는 09:56 끝까지 저항하던 해적 2명을 생포하였고 3명 사살을 끝으로 작전을 종료하였다.⁶³⁾ 이처럼 다양한 연합자산이 공격팀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61) 김명성, “해상교통로(SLOC)의 비전통적 안보위협 연구: 소말리아해적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 119.

62) 국방일보, “아덴만 여명작전’ 1주년 작전성공 요인”, 『국방일보』, 2012년 1월 18일.

63) 손경호, 앞의 논문(2012), pp. 94-95.

나. 네트워크전 수행

특수작전부대는 카이샷(KAISHOT)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팀에서부터 실시간으로 합참까지 전장을 공유하면서 적시적으로 대응하였다. 동시에 청해부대는 지부티에 입항하고 있는 중에도 삼호주얼리호의 상황을 연합해군사령부 겸 미 제5함대 사령부와 대해적 작전 전담 연합기동부대(CTF-151)에 전파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었다. 연합해군사령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로 삼호주얼리호 피랍 현장에 연합해군 함정이 없음을 확인한 연합해군사령부는 즉각 미 FA-18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피랍 현장에 투입하였다.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된 초기 석해군 선장과 두 번의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해적의 동태와 선원들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영해로 이동 간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청해부대에서는 모든 가용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삼호주얼리호에 인접하여 작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함정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삼호주얼리호 동북방 300여 킬로미터 해상에 파키스탄의 바버(Babur)함이 페르시아만 해양 안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⁶⁴⁾ 마지막으로 실시간 작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공격팀과 최영함의 지휘부에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작전을 통하여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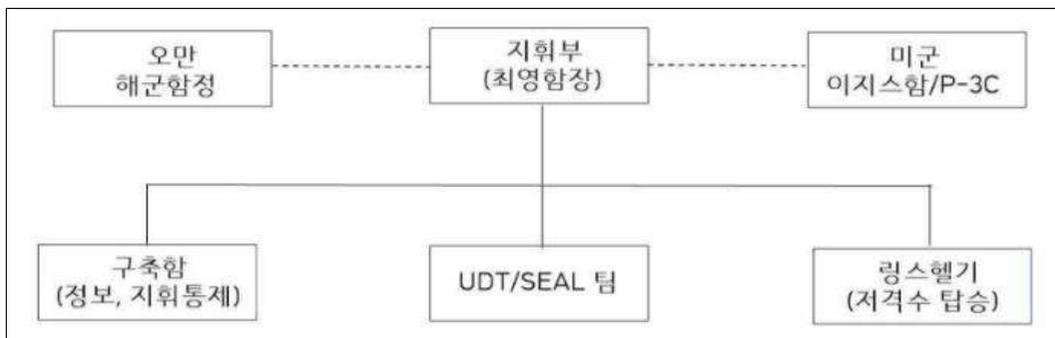
2. 조직편성

가. 연합작전팀 편성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은 해군 특수작전부대만이 수행하는 독립작전이 아닌 연합해군사령부를 비롯해 다국의 전력들이 투입되는 연합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공 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은 <그림 3-1>과 같은 다양한 조직이 참여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64) 조영주, 앞의 책(2022), pp. 146-147.

<그림 3-1> 청해부대 작전팀 편성



* 출처: 김광현, “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3호, 2022. p. 191.

나. 특수작전팀의 조직편성

청해부대는 전함 외에 작전에 투입된 전투부대나 지원부대가 편성되지 않아 작전의 융통성이 부족했다. 공중원거리 작전용 항공기도 편제되어 있지 않아 공중으로 작전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없었다. 또한 해적이 사용하는 소말리아어 통역사가 공격팀과 투입되지 않아서 국내의 소말리아어 통역사를 통해 작성한 문안을 오만 거주 교민이 읽어 녹음해서 사용하였다. 이렇듯 언어의 문제는 해적들을 압송하여 심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해적들과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원이 작전 전 단계에서 같이 편성되어 이들의 압송/심문단계에까지 운용되어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작전과 작전이 종료된 이후에 군사재판을 위한 증거와 증언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⁶⁵⁾

아덴만 여명작전 시 조직편성 측면을 분석해 보면 해상 대테러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협조체제는 갖추었으나,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법을 시행하기 위한 정보지원과 전문인력(통역사 등)의 충원 등이 조직편성 면에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랍된 선박으로 진입 시에 특수작전 요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거리 항공 자산의 정찰 및 합동전력 편성이 부족하였다.

65) 손경호, 앞의 논문(2012), p. 96.

3. 무기체계

가. 첨단과학기술체계 운용

아덴만 여명작전을 수행했던 청해부대의 최영함은 대한민국의 KDX-II급 6번째 구축함으로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최첨단 구축함으로 4,500톤급으로 탑승 인원 300명, 항속거리 1만 200km이다. 적의 함정과 잠수함 격침은 물론 전투기를 요격할 수도 있고 갑판 아래에 수직 미사일 발사대가 보유하여 사거리 150km, 총 32발이 장착되어 있다. 또한 대잠어뢰 청상어, 근접 전투를 위한 구경 5인치 함포, 분당 4,200발을 발사하는 구경 30mm 대공포를 배치하였다.⁶⁶⁾

최영함의 첨단 전자전 장비도 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SLQ-200(V)K 소나타는 최영함이 해적의 감시를 피해 근접 항해를 할 수 있게 했다. 소나타는 미사일이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해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는 정보탐지기능(ESM)과 적 레이더에 고출력의 방해전파를 발사해 교란하는 전자공격기능(ECM)을 갖추고 있다. 최영함은 이 장비로 삼호주얼리호 레이더를 교란해 3.6km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며 근접하여 항해했다. 그러나 해적들은 1차 구출 작전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대잠헬기인 슈퍼링스와 고속단정(RIB)도 역할을 했다. 링스헬기는 탑재된 K6 기관총으로 삼호주얼리호의 레이더와 통신안테나에 사격을 가하며 해적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는 고속단정도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⁶⁷⁾

해군 특수작전 요원들이 사용했던 첨단 디지털 무기 및 장비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헬멧과 저격용 총에는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인 ‘카이샷(KAISHOT)’이 부착돼 작전 전 과정을 현장 지휘부인 최영함에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최영함은 이를 통해 삼호주얼리호 안팎을 상세하게 살펴보며 요원들에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 이 영상은 인공위성을 통해 한국의 해군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도 전송됐다. 이 제품들은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했으며 미국 경찰에 1,000대 공급하기도 했다. 둘째, 특수작전 요원들이 삼호주얼리호 내부로 진입할 때 던진 섬광탄(일명 스마트탄)은 해적들의 시야를 10초 정도 마비시켜 요원들의 위험한 선실 진입을 도왔다. 그로 인해 특수작전 요원의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⁶⁸⁾ 해군 특수작전 요원이 사용한 장비는 <그림 3-2>와 같다.

6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161&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3. 7. 21.)

67) 유성운, “[아덴만 여명작전] 카이샷, 스마트탄…첨단 디지털 무기들”, 『동아일보』, 2011년 1월 24일.

<그림 3-2> 해군 특수작전부대 사용 장비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205666> (검색일: 2023. 9. 17.)

나. 연합 무기체계 운용

아덴만 여명작전은 미군의 P-3C 대잠항공기에서 전송한 정보를 수신받았다. 이러한 고가치 정보는 해적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우위의 네트워크를 보장하여 성공

68) 유성운, 앞의 신문(2011).

적으로 작전을 종결할 수 있었다. P-3C와 같은 고정익 항공기는 해상작전에 효과적이다. P-3C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잠함 작전에서 가장 활약했던 정찰기로 장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한 정찰기이다. 고정익 항공기의 또 다른 장점은 신속하게 피랍선박 인근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P-3C는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를 보면 저고도로 접근해서 해적들을 제압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해적들이 목표 선박에 접근하기 전에 항공기가 상공에 선회하면서 마린 마커를 투하하면 해적들은 해적행위를 포기하고 도주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 자산은 매우 유용한 해상작전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⁶⁹⁾

또한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미 해군 P-3C와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한 해적의 동태 및 최초현장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피랍 현장에서부터 청해부대는 2,000km나 떨어진 지역에서도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아 상황인식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상황인식 차원의 정보와 더불어 추가적인 첩보까지 획득하였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테러인 만큼 현장으로 신속히 기동할 수 있는 자산은 필수적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무기체계는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 무기를 활용한 한국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신속 정확한 보고-결심-타격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침단의 연합자산은 해상 대테러작전이라는 특수성과 선박 내·외부의 비좁은 환경 등 악조건에서도 특수작전 요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69) 손경호, 앞의 논문(2012), p. 102.

제4절 소결론

아덴만 여명작전은 연합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며 테러의 영향요인을 명확히 인식하여 제한된 여건하에서도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고, 테러범들의 취약한 시간에 작전을 개시하여 대테러작전의 전법을 통하여 완전작전으로 인질을 구출할 수 있었다. 전장환경 면에서 2000년 이후 해적활동이 증가하였고 특히 소말리아 해상은 해적의 활동이 빈번하여 유엔안보리의 결의로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조성되어 갔다.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되었을 때 현장부대는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하였고, 연합해군 사령부 통제하에 관련국가들과 작전을 협조하였고, 정부는 테러를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연합작전부대를 편성하여 연합사령부의 정보지원 하에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연합작전과 네트워크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인질을 구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미흡사항도 식별되었지만 결국 아덴만 여명작전은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른 특수작전 전법을 발전시켜 완전작전으로 종결한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사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아덴만 여명작전 사례분석 결과

구 분		아덴만 여명작전 분석
테러의 영향 요인	전장 환경	· 아덴만해역 해적활동 증가, 유엔의 대해적 활동 참가 요청 · 다수의 국적선박 보호 위해 청해부대 해양안보작전 수행 중
	위협 인식	· 해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한 · 소탕작전 간 극렬한 저항 예상, 인질 피해 우려
	대응 의지	· 확고·단호한 대응으로 대국민 안보불안감 일소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 타협 없는 구출작전 감행 결정
대테러 작전 전법	작전 수행 개념	· 소탕작전 전 삼호주얼리호와 동일한 선박 자료 활용, 숙달 · 연합작전 수행 · 네트워크전 수행: 합참-해작사-현장부대 간 실시간 지휘통제
	조직 편성	· 해군부대 외 미편성, 작전의 융통성 부족 · 원거리작전용 항공기 미편성 · 현지어 통역사 미편성
	무기 체계	· 해적보다 우위의 무기체계 운용, 신속한 제압 가능 - 카이샷, 저격수, 링스헬기 등 · 미군과 실시간 정보 공유 가능

* 출처: 아덴만 여명작전을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에 따른 전법 측면에서 연구자가 정리함.

종합적으로 볼 때 비전통적 안보위협 중 테러의 영향요인인 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는 특수작전부대가 특수작전 전법인 대응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분석 결과 한국군 특수작전부대가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른 대테러작전 전법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표 3-5>와 같다.

<표 3-5> 한국군 대테러작전 시 보완할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테러 영향 요인	전장환경	· 다영역 차원의 테러양상
	위협인식	· 다발적·복합적 테러
	대응의지	· 국가적 차원의 테러대응 및 지원
대테러 작전 전법	대응개념	· 연합 대테러작전 개념 발전
	조직편성	· 합동성 기반의 조직편성
	무기체계	·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 출처: 아덴만 여명작전 분석 결과 테러의 영향요인과 대테러작전의 전법 측면에서 한국군이 보완할 사항을 연구자가 정리함.

따라서 제4장에서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서 분석된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른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의 발전방향을 특수작전 전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 분석 및 발전방향

제3장에서 테러의 영향요인과 특수작전 전법을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분석하여 테러의 영향요인이 특수작전의 전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현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운용을 분석하고 미래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른 육군 특수작전부대 전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테러 영향요인 분석

1. 다영역 차원의 테러양상

국제테러리즘은 테러의 차원을 넘어서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테러의 주체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초국가적 범위로 확대되었다.⁷⁰⁾ 이로 인한 무고한 시민들과 공공시설 및 전쟁법을 어기는 등 소프트타격을 공격하였다. 또한 무차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기초로 발달한 IT 기술은 테러 조직에도 더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테러 조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다른 테러 조직과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연결하였다. 심지어 범죄 집단과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갈수록 진화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테러 양상의 침단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의 진보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격 수단을 준비하여 오프라인을 통해서 목표한 대상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3D 프린터 기술 및 드론 공격의 접목과 군집 드론을 이용한 조율된 공격, 무인 자동차와 드론, 각종 IoT와 이와 결합한 사이버 공격들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구현될 개연성이다.⁷¹⁾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특정 개인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이 손쉽게 드론을 이용하여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 유사한 테러들은 일일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이나 밀집 시설, 국가시설 등의 보안이 취약한 곳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 보강이나 방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사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방어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미래 테러 양상은 기존 테러

70) 유형창, “국제화에 따른 한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과 대응전략”,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1호, 2012, pp. 125-127.

71) 윤민우, “드론테러의 전략적 의미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 『가천법학』, 제12권 4호, 2019, p. 250.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측이 불가할 것이다. 따라서 테러 위협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국내·외 테러 대응 체제를 견고하고 동시에 융통성을 보장하면서 구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및 국제적인 정보공유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테러 위협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국내·외 각종 테러리즘을 분석하면서 예방과 피해 최소화, 유사시 테러 대응 및 사후 처리 과정 등을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테러와 관련한 전장환경 측면에서 휴전상태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군사적 도발 시 남한의 보복과 미국 전력의 한반도 전개 등의 응징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와 유사한 범행을 통해 한국을 혼란 및 마비시키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⁷²⁾

둘째, 북한의 테러 양상의 변화이다. 북한은 꾸준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지속적인 대남도발과 테러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제원은 주요 무인기 생산국의 개발역량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있지만, 민수용 무인기 시장에 대한 손쉬운 접근 가능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개발역량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 비대칭성을 무기로 대남테러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무인기 자체로 비대칭 위협이기보다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략과 전술적인 운용과 동시에 무인기에 탑재하는 기능에 따라 비대칭 위협의 여부가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⁷³⁾

2022년 북한의 무인기는 경기도 서북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은 지난 2016년 9월 군사분계선 인근지역에 무인기 운용을 위해서 통신중계소를 증설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다수의 중계소에서 운용되는 무인기와 통신함으로써 작전 범위를 넓히면서 군사분계선 인근 한국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통신을 위한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⁷⁴⁾ 이와 같은 북한의 무인기 보유 추정 현황은 <표 4-1>과 같다.

72) 김광현, 앞의 논문(2022), p. 107.

73) 정구연·이기태,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KINU 연구총서, 16-04,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5.

74) 김세진, “北 신형 무인기 배치, 대남 정찰 강화”, 『MBC뉴스』, 2016년 9월 28일.

<표 4-1> 북한의 무인기 보유 현황 추정

무인기 명칭	특 징
D-4(ASN-104) 방현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시안 ASN-104를 개량한 ASN-105모델을 토대로 ‘방현 I,II’라는 자체 드론 생산 추정 · 최대 속도 162km/h, 체공시간 15분, 고도 5,000m
Tu-143 Re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소련제 무인정찰기 · 1994년까지 시리아군으로부터 확보, 핵탄두나 생물무기 탑재 개량 추정 · 최대 속도 950km/h, 체공시간 15분, 고도 5,000m
Pchela-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러시아로부터 10대 구입 · 모니터 통해 통제, 야간 비행능력 없음 · 최대 속도 180km/h, 고도 2,500m
공격용 무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제 MQM-17모델로 하는 공격용 드론 개발, 2012년 3월 북한군 군사 퍼레이드 등장
파주, 삼척 추락 무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무인기 스카이-09 변형모델 · 2014년 3월, 4월 파주와 삼척에 각각 추락 발견 · 최대속도 120km/h, 고도 1,500m

* 출처: Bermudes Jr. Joseph S, “North Korea Drones On: REdeux Military Affairs”, 2016.

2. 다발적·복합적 테러

‘다발적’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복합적’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즉, 테러는 앞서 전장환경 측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테러의 위협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러한 변화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적 테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는 과거로부터 발생한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익명성 사이버 테러와 무기를 활용해 공격에 취약한 대상(민간인, 공공장소 등)을 상대인 소프트타깃을 겨냥한 테러의 위협이 있다. 그리고 국가 기관 테러, 자생적 테러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결합한 테러 위협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테러리즘은 과거 폭발물·총기·화생방 및 해상과 항공테러를 추가하여 발

달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드론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최근 테러리스트들은 SNS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테러 추종자를 모집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테러를 획책할 것이다.⁷⁵⁾

또한 국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서울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서 폭발 사고⁷⁶⁾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테러는 사제폭발물을 제작하여 테러를 발생시킨 것이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SNS 등을 활용하여 칼부림 예고성 글을 올리는 등 시민들은 테러에 대한 공포심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해외에서도 발생한 테러로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 보스턴 마라톤 폭발물 테러, 맨체스터 공연장 자살 폭탄테러 등 다중밀집 시설에 대한 무차별 테러 양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테러에 대한 위협은 지속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화 및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문화발전 등 많은 긍정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양극화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니고 사회적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⁷⁷⁾ 외국인 체류자와 다문화가정, 무슬림과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회에서 소외당하거나 소외당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이 외에도 이혼·별거·가출 등으로 가족 해체 및 생활고로 인하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해 불만을 품고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돼 범죄집단, 테러 집단에 이용될 개연성도 있다.⁷⁸⁾

현재 한국은 국가 발전에 따라 대중들의 기대와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족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단독적 또는 조직적으로 계획적인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한다.⁷⁹⁾ 또한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자유무역 협정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집단이 반미·반일 감정 등을 앞세워 경제적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국내 정치인, 관공서 또는 외국인, 다국적 기업 등에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한반도 주변 환경에는 난민 문제, 한미동맹으로 인한 반미 테러단체의 적대감,

75) 조홍제·강호중,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테러동향과 대응방안”, 『한국테러학회보』, 제13권 2호, 2020, pp. 14-16.

76) 2011년 5월 12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서 발생한 폭발물 테러임.

77) 정현석, “국내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 48.

78) 정현석, 앞의 논문(2016), p. 67.

79) 박동균,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 제2권 1호 2009, pp. 81-111.

이슬람과의 공존, 다국적 부대와 접촉 등으로 테러 위협에서 안전지대라고 자부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고, 각종 테러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IS: Islam State)라는 테러 조직은 주의해야 할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이 때문에 테러에 대한 방비책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대중들은 무차별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 마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⁸⁰⁾

3. 국가적 차원의 테러대응 및 지원

2004년 이라크전쟁이 끝난 뒤 테러 조직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이라크로 파견 간 한국 남성이 붙잡혀 참혹하게 희생되었다. 이 사건은 비디오로 촬영된 참수 장면이 무분별하게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 전 국민이 분노했다. 전 국민은 희생자가 사망 전까지 전 세계에 무사 귀환을 호소하며 추모 촛불집회를 계획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었다.

현재까지도 테러는 국외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의 일상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 위협은 뉴스나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 의지가 요구된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테러 예방과 각종 테러 대응체계 개발과 운용과 관련된 민·관·군이 통합된 협력이 필요하다.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테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테러리스트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제테러리스트들의 입국 전 정보를 공유하며 발생할 테러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테러의 목표물이 과거 여객기나 정부 건물 등 경성 목표물(Hard target)을 노리는 데서 지하철·기차와 같은 연성목표물(Soft target)로 옮겨간바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공격수단도 자살폭탄테러 아니면 사린가스나 탄저균처럼 소량으로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방사능 무기일 것이다. 지하철이나 기차, 선박, 백화점 등 대중이 이용하는 연성목표물에 대한 새로운 대테러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또한 대테러 정보활동 및 테러 관련자 감시할

80) 박주진·정성배·이영석, “사례분석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폭발물 테러 대응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6호, 2023, p.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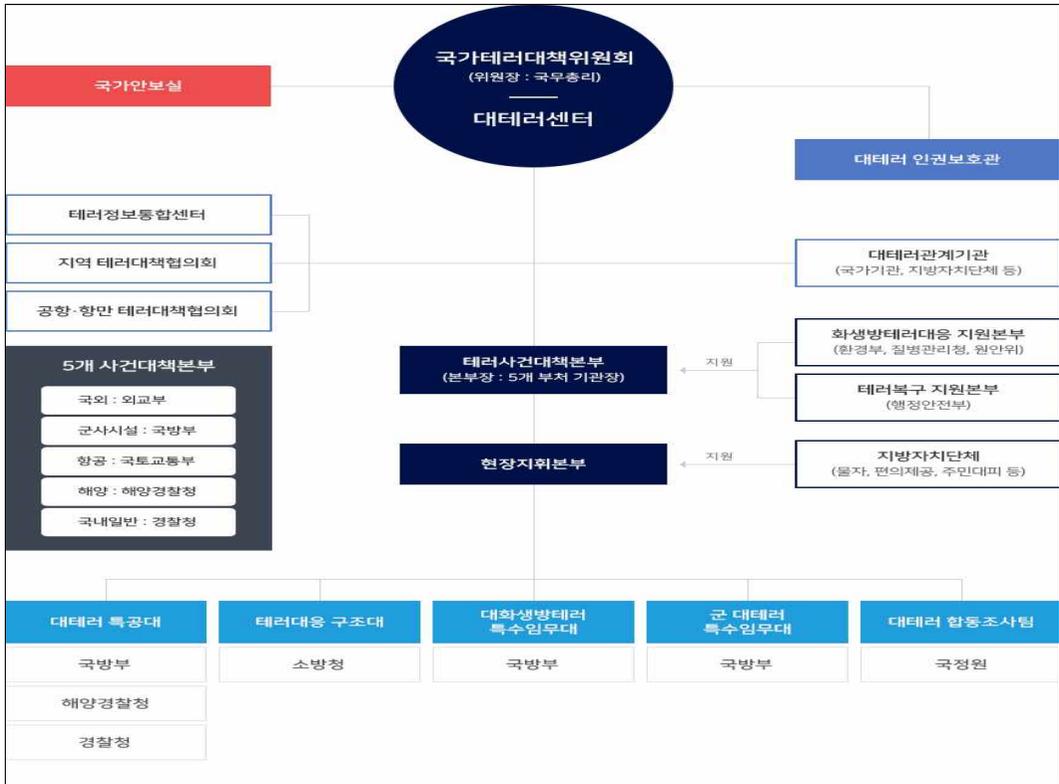
동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활동과 종교활동 등에 대한 정보력을 높이고, 테러단체와 관련된 집단이나 개인들에 대한 정보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⁸¹⁾

정부는 국내에서 테러 첩보의 통합 수집과 정보의 통합관리 및 전파 능력향상을 위해 2005년 4월 1일 국가정보원 산하에 테러정보통합센터(TIIC)를 개소하였다. 외교통상부도 해외 테러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와 테러 대응 국제공조 업무 강화를 위해 2006년 2월 외교정책실 산하에 대테러 국제협력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테러 발생 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하는 유관기관으로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을 주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전 세계 테러 발생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대테러체계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대테러체계는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 지속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대테러체계를 거듭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테러 위협에 대해서 정부의 확고한 대응의지는 중요하다.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 대테러 체계도는 <그림 4-1>과 같다.

81) 이만중, 앞의 책(2015), p. 332.

<그림 4-1> 국내 대테러 체계도



* 출처: <http://www.nctc.go.kr/nctc/activity/system.do> (검색일: 2023. 9. 24.)

결과적으로 대응의지 면에서 아덴만 여명작전의 사례에서도 분석하였듯이 정부의 확고한 테러 척결 의지는 테러 발생 시 대응 방향의 기준이 된다. 통수권자의 의지가 작전 현장의 특수작전 요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테러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은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실행하여 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 장비와 물자, 작전 시스템 등을 최신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욱 네트워크화·거대화·조직화 되어가는 무정부 테러단체를 소탕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시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유사시 특수작전부대가 적극적으로 대테러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⁸²⁾

82) 김광현, 앞의 논문(2022), p. 108.

제2절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 분석

1. 연합 대테러작전 개념 발전

육군은 특수작전부대를 북한 무력도발에 대비한 대응전력으로 발전시켰다. 6·25 전쟁 이후 육군의 관심은 재래식 전력증강에 집중되었다. 그로 인해 국방부는 6·25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유격대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육군 제1전투단은 북한이 수행한 게릴라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유격작전과 북한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략적 수단으로서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⁸³⁾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전략적 임무보다 작전적, 기술적 임무 위주로 운용되었다. 50년대에 이어 60년대 이후에도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작전수행개념은 주로 대게릴라전과 특수정찰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한국군의 중앙기동예비부대로 북한의 국지도발에 맞서 전·후방지역을 비롯하여 해안과 도서지역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베트남 전쟁 등에서 비정규전, 민사심리전과 같은 임무수행보다는 단순한 정찰감시, 매복 위주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한국군 육군의 특수작전은 특수작전의 심리적, 물리적 효과인 전략적 마비를 달성하는 데는 부족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도 북한 무장공비 침투가 계속되자 특수작전부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침투작전 수행과 더불어 국지도발대비작전의 유형별 계획 정립, 작전계획 발간 등을 통해 임무수행 능력을 완비해 나갔다.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1999년부터 4년간 동티모르에 특전대대를 모체로 상륙수부대를 편성하여 파병하였다. 이러한 파병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및 2003년에는 특수전교육단에서 아프가니스탄 동의·다산부대와 이라크 서희·제마부대 파병지원을 담당하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작전을 1개 특전여단이 담당하게 되었다.

88올림픽을 계기로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대테러부대를 창설하면서 테러에 대응한 부대운용을 발전시키고 있으나, 변화된 테러환경에 비해 특수작전부대의 대응 개념 발전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더욱 첨단화되어 가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테러를 가장한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여 그레이존 워(Gray zone war), 하이브리드전

83) 당시 6·25전쟁을 통한 경험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취약성을 인식한 이승만 대통령은 전략적 임무의 특수작전보다는 육·해·공군과 같은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와 물리적 증강에 관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당시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Hybrid war), 대반란전 수행 개념의 발전이 요구된다. 또한 유관기관과 통합된 작전 수행개념의 발전과 평시부터 합동전력을 운용한 테러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작전수행 방법이 요구되며 국제화되고 있는 테러 양상에 대비한 연합 대테러작전 개념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2. 합동성 기반의 조직편성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평시에 육·해·공군별 모군 통제하에 편성 및 운용되어 통합된 계획과 훈련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도 미흡하고 구조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미 특수작전부대는 독립된 통합전투사령부(United Combat Command)에서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미국 특수작전을 미군은 1987년 국방수권법 부칙으로 골드워터-니콜라스 법안을 통해서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독립적 통합전투사령부로 미국 특수작전사령부(USSOCOM: United States Special Operations Command)을 창설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4월 23일부로 미군은 기존의 신속대응사령부(USREDCOM: United States Readiness Command)를 폐지하고 동시에 특수작전사령부(SOCOM: Special Operations Command)를 창설했다. 그리고 육군 그린베레와 레인저, 해군의 실팀, 공군의 특수작전비행단 등을 휘하에 배속시켰다. 또한, 미국은 특수작전이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적용되기 위하여 특수작전의 정책조직도 구상했다. 그 목적으로 미 의회는 국방부에서 특수전 및 저강도전 차관보(ASDSOLIC: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Special Operations and Low-Intensity Conflict)를 두도록 하여 특수작전이 국방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⁸⁴⁾ 미군 특수작전부대의 조직편성은 <그림 4-2>와 같이 각급 사령부로 구성되면서 특수작전이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전격적인 지원도 보장되고 있다.

84) 육군교육사령부·한국국가전략연구소, 『4차산업혁명 기술의 미래지상군 전투발전 및 활용방향』, 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소, 2019, p. 14.

<그림 4-2> 美 특수작전부대 조직도



* 출처: <https://sofrep.com/specialoperations/nswc> (검색일: 2023. 9. 20.)

미군은 특수작전부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미 특수작전부대는 최근에 발생한 저강도 분쟁을 통한 다양한 전장에서 특수작전(비정규전 및 대테러전)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현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지휘구조 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태다. 첫째, 지휘구조 측면에서 특수작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사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평시 지휘구조는 육군, 해군, 공군 간 ‘협조’ 관계로 설정되어 있어 특수작전부대의 핵심적인 침투자산인 특수작전 항공 자산들을 각 군이 별도로 운용해야 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전투력 발휘가 제한된다. 한편, 전시에는 한·미 간 연합특수전사령부가 창설되나 해·공군의 특수작전부대의 일부 부대만 작전을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로 인해 연합 침투자산은 미측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연합특수전사령부가 통합된 지휘체계 아래 한·미 전력들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특수작전 수행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특수작전의 ‘전략적’ 운용성에 대한 군의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식 수준이 저조하다는 데 있다.⁸⁵⁾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 측면에서도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다양한 작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특성화된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

85) 김광현, 앞의 논문(2021), p. 98.

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서는 부대구조를 개편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충한 부대 및 병력구조가 요구된다.

이것은 현재 육·해군이 보유한 대테러특공대를 통합하여 다양한 국내·외 테러에 대응하는데 주안을 두겠지만, 그 이외에도 국가급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적인 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가통수기구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선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⁸⁶⁾

3.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므로 작전 요원의 생존성을 확보한 가운데 임무수행 관련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 및 완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테러작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한 획기적인 전력 보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의 드론봇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드론봇 전투체계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더불어 특수작전부대에서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다.

미래 전장에 맞춰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한 대테러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드론과 로봇이 전투원을 대신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체계로 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과거의 실전적이지 못한 교육훈련과 대응체계에서 머물러 있는 면도 있다. 더욱이 기존의 대응 개념에 고착되어 무기체계 또한 창의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육군 특수작전부대가 특수작전과 대테러작전 수행 시 무기체계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수작전부대는 대테러작전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드론봇 전투체계의 발전이 미흡하다. 이러한 대테러작전용 드론을 활용하여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국가통수기구에 직접 전달하면서 실시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한 민간사업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이를 군사적으로 융합해 접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적 제약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드론봇 전투체계를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팀 편성 등 다양한 전술적 옵션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테러작전 시 독자적인 대응 시 정밀하고 타격력이 증가된 무기체계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드론봇의 타격 능력을 활용해 유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86) 김광현, 앞의 논문(2021), p. 100.

다. 대테러작전 간 드론봇 전투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리 분야에서 드론봇 전투체계를 활용한 대테러작전의 기본개념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전장 환경을 고려 구조 및 편성 발전. 셋째, 특수작전부대에 적합한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넷째, 교육훈련 방법 발전 및 숙달 등이 조기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임무를 고려했을 때 기동성은 매우 중요하다. 대테러작전팀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동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고성능 통신체계와 특수한 침투와 기동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생존성이 확보된 가운데 테러범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침투 수단을 전력화하여 임무 수행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생존성은 아군의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강구된 모든 방법과 능력을 말한다. 또한 한국군 특수작전용 헬기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스텔스 기능 보장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⁸⁷⁾

셋째, 대테러작전에서도 테러 정보를 획득하며 스텔스와 메타 기능을 활용한 복장 착용 등을 통하여 생존성을 향상해야 한다. 대테러 작전요원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탄복과 방탄 장비 등의 전력화는 지연되고 있다. 첨단 전력화 장비를 활용한 위협 세력에 대한 정보획득, 즉각적인 기동 및 침투, 타격, 생존성 향상으로 테러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시급한 실태이다.

87) 육군 특전사가 운용하고 있는 특수작전용 UH-60, CH-47 헬기에 적 후방 침투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생존장비가 거의 탑재돼 있지 않다. ('11년 국정감사, 심대평 의원)

제3절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 발전방향

1. 대응개념: 명확한 작전목적 설정

미국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통합적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 교통, 국경, 화생방, 구조 등 다양한 기구가 하나의 통합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적 대책본부 설치와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범죄와 테러 유형에 따라 해당 부서(처)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테러 발생 초기에는 대공 용의점을 판단하기에 제한될뿐더러 군의 전문성과 국제적인 테러 위협 증가와 신종 자생테러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현 『테러방지법』의 군에 한정된 군 전력 투입 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⁸⁸⁾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작전목적이 요구된다. 첫째, 테러 상황 발생 시 특수작전부대의 투입 범위의 확장이 요구된다.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테러나 일반테러의 경우 모든 군사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테러 대응체계 하에서도 군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적 보장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즉, 향후 테러방지법 개정 시 일정한 상황에서 군의 자동적 개입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작전부대가 투입되기 전에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테러 정보수집과 분석, 배포체계를 국가정보실(DNI)의 주도 아래 정보공동체(IC)에서 생산, 분석된 정보를 국토안보부 내 정보분석국이 이를 수신하여 기관 및 민간협력 업체와의 정보공유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능조정국에서 각 부서의 지휘자급 부서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테러 정보수집, 분석과 국가기관에 한정된 테러 정보 전파 업무를 하고 있어 관계기관별 정보의 통합과 분석, 민간과의 정보활동 공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⁸⁹⁾ 미군은 하루 9만 개 이상의 페이스북(Facebook) 포스트를 분석하여 IS테러의 위협을 예측하는데 자율 학습체계(Autonomous learning system) 분야로 빅데이터 분석기술, 딥러닝, 기계학습

88) 김학경,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0권 1호, 2019, pp. 19-23.

89) 이치영·김우진·권혁빈,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조직 비교분석”,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3권, 2016, p. 29.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⁹⁰⁾

셋째, 평시 특수작전부대와 유관기관과 통합작전이 요구된다.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앞서 유관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테러 사전 검거와 자금·무기 지원 금지, 테러범의 국제 네트워크 차단 등을 통해 테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대테러통합 훈련을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공조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장비개발과 호환성 등을 정립해야 한다. 대테러 관련 기관들이 군사, 해양, 항공, 항만, 철도 등 각각의 테러 유형의 특징과 방법에 따라서 각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훈련 방법과 유사한 커리큘럼의 교육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테러 대응훈련은 대테러종합훈련, 합동훈련 등 대테러 훈련과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 수단의 자문, 점검, 평가, 지원을 통해 표준화된 대테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⁹¹⁾ 대테러통합기구는 테러 이용 수단과 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가능성 있는 테러 유형별로 예방과 대응 훈련하면서 전문인력에 의한 점검 및 평가를 지속해야 한다.

넷째, 대테러발전을 위하여 전투발전 요소로 교리 (Doctrine), 조직(Organization), 훈련(Training), 장비 (Materiel), 통솔력(Leadership & Education), 인사 (Personnel), 시설(Facilities), 정책(Policy)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대규모 작전을 수행해보지 않은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경우 합동 대테러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실천적 경험이 부족한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대규모 훈련 및 훈련 후 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교리가 발전되기 위하여 노력에 힘써야 한다. 특히 대테러작전 대응개념과 교리발전을 위해서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대테러작전 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한 대응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서 외교, 군사, 경제 등 복합적인 위협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위협의 양상은 상대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교전이 아닌 국제법상의 위협을 하지 않은 수준에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영역에서 특수작전부대의 장점인 특수성을 기반으로 유연한 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의 전면전을 대비하는 특수작전부대가 아닌 테러와 저강도 분쟁 등 다양한 전쟁을 준비하는 특수작전부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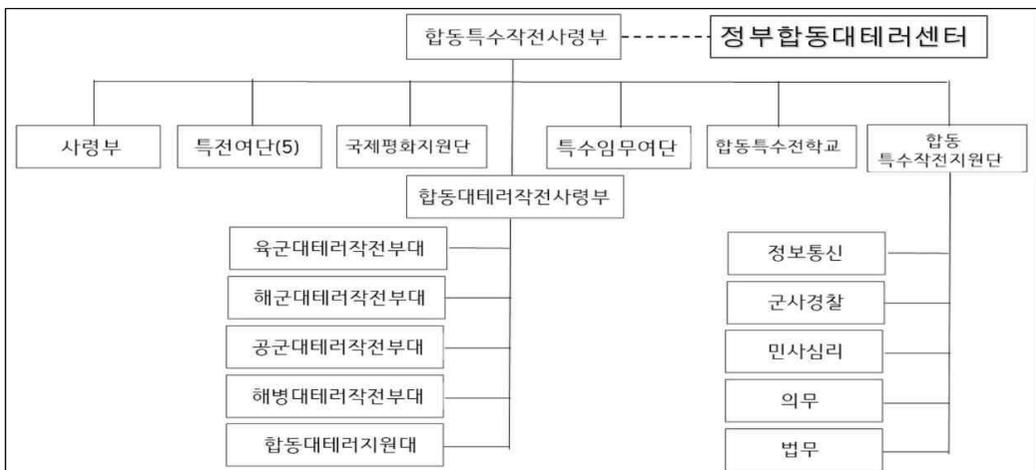
90) 박지훈,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704호, 2018, p. 3.

91) 이치영·김우진·권혁빈, 앞의 논문(2016), p. 31.

2. 조직편성: 합동특수작전부대 편성

조직편성 면에서 미군은 이란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하자 1981년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를 창설하였다. 1987년에는 통합특수작전사령부(USSCOM)를 창설하였다. 한국군도 미 통합특수작전사령부와 같은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Joint Special Operations Command) 창설이 필요하다. 평시부터 일원화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 특수작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휘체계를 기반으로 통합된 테러 대응을 위해서 각 군 대테러부대를 통합하여 합동대테러작전사령부(JCTOC: Joint Counter Terror Operations Command)를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예하에 편성시켜 합동부대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증가하는 각종 테러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편성이 요구된다. 합동 대테러작전사령부는 정부 합동 대테러센터와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테러 상황 발생 시에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합동 대테러작전사령부가 대테러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합동대테러센터는 군(합동특수작전사령부, 정보사 등), 국정원, 통일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으로 편성하면서 상시 테러 상황을 추적하면서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⁹²⁾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림 4-3>과 같이 편성(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4-3>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및 대테러작전사령부 편성(안)



* 출처: 김광현, 앞의 논문(2022), p. 110.

92) 김광현, 앞의 논문(2022), p. 110.

테러 대응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자들은 현행 테러 대응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군(軍) 주도 또는 유관기관 주도의 대응 태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혼선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즉, 현행 체계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대공 용의점 여부를 판단하고,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주도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테러와 단순 폭력사건 사이에서 그 주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테러관련 정보기관과의 공유를 위한 정부합동대테러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합동특수작전사령부와 테러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관련 정보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Big-Data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보 유지와 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중 테러 첩보와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테러작전 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군에서 시행하는 대테러훈련을 각 기관과 특수작전부대에서 각기 실시하는 것을 합동특수전학교에서 통합 시행하면서 합동성과 즉응성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테러작전에 경험이 많은 외국군과의 다양한 연합 대테러훈련을 합참에서 주도하여 협조하고 시행하면서 국제적인 대테러능력을 구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상 전문가와 지역별 통역사를 겸한 전문가를 편제하여 평시부터 합동 대테러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유사시 특수작전부대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⁹³⁾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드론봇 전투체계는 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간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서 드론봇 전투체계의 다양한 활용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작전 요원들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테러작전 유·무인 복합팀 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무인 복합팀은 ‘로봇이 할 일’과 ‘전투원이 할 일’을 나누어 기술적 운용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작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테러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팀 편성은 필수적 조건일 것이다.

3. 무기체계: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무기체계 면에서 4차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특수작전부대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무인전투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과거로부터 특수작전부대의

93) 이준복,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테러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테러학회보고』, 제14권 2호, 2021, pp. 12-15.

중요도와 활약은 뛰어났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와 전사를 통해서 분석되었다. 즉, 특수작전 요원들의 뛰어난 신체적 조건에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무인체계의 전력화가 향후 대테러작전의 전투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무기체계의 첨단화가 조기에 전력화되어야 한다.

첫째, 생체형 정찰용 드론 및 부족한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격형 드론이 운용이 요구된다. 아덴만 여명작전 시 해군 특수작전부대는 모든 특수작전 요원이 착용한 카이샷은 동 시간에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대응조치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대테러작전에 합동 전장의 네트워크는 AI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테러작전지역에서 정찰 및 감시는 내부로 진입한 특수작전부대와 대테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며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능화된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정보관리 및 처리를 통해 통수권자와 현장 지휘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 영역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는 통합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된 다량의 데이터들은 영상분석을 거쳐 높은 정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격형 드론을 운용하여 주변의 위협을 제거해주고, 특수작전팀의 부족한 화력을 지원하여 적을 제압함으로써 생존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감시장비는 현재 미군에서 전투원들에게 보급 중인 ENVG-B(Enhanced Night Vision Goggle-Binocular)와 같이 약 1kg 남짓의 초경량, 초성능 감시장비가 특수작전 부대에 도입되어야 한다.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50~300m 거리에서는 80% 수준으로 식별할 수 있고, 300~550m는 약 50%로 식별할 수 있다. 미광증폭 방식과 열영상방식을 사용하여 기상과 지형의 제약을 보완하여 작전 중인 대테러작전 요원에게 현장의 네비게이션 기능과 증강현실로 상황인식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⁹⁴⁾

셋째, 특수작전부대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작전부대는 대테러작전뿐만 아니라 전시 후방 지역 침투 시에도 작전팀의 생존 보장 차원에서도 고성능 항공 자산이 요구된다. 임무 종료 이후와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신속한 항공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전력화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현재 보유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의 성능개량

94) 이범석,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문분석 및 특수전 전력 발전방안”, 『특수작전』, 제13호, 2022, p. 87.

이 요구된다. 공중연료 재 보급 장치, 미사일 경보장치, 탑재화기, 디지털 조종석 등이 단기 성능개량사업이다. 중기에는 미 특수작전 항공부대에서 운용 중인 MH-60 급 헬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고속 스텔스 헬기로 작전요구성능(ROC)은 향상된 레이더 피탐성과 빠른 속도, 화생방 방호능력, 20mm 급 대공화기에 대한 내탄성 등으로 상정할 수 있다.⁹⁵⁾

넷째, 타격장비는 군사적 대테러작전에 주로 사용되는 소총과 모듈화된 조준경이 기본적인 장비이다. 美 볼텍옵틱스社에서 제작한 조준경은 가변 배율 광학,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계산기, 대기 센서 분석기, 나침반, 무선통신 연동 기능, 가시광선 및 적외선 조준 레이저,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서 사격하고자 하는 표적이 원거리일 경우에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탄도 계산기, 대기 센서 분석기 등을 통해 최적의 탄착점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그것을 조준경 안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표시시켜 주는 장비를 특수작전부대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⁹⁶⁾

다섯째,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AI기반의 전과 교란 장치는 적 무기나 장비별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시 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하는 드론이나 로봇, 자율주행 차량에 전자전 전파방해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스푸핑(Spoofing) 장비는 적군 위성에서 지상, 적군 공중 감시자산에서 지상, 지상에서 지상으로 송출되는 신호와 적 데이터에 잘못된 항법, 영상, 통신 정보를 주입하여 아 배치를 기만하거나 적의 항법 시스템 정보를 마비시킬 수 있다.⁹⁷⁾ 또한 전자기파폭탄(EMP: Electromagnetic Pulse), 고출력마이크로파무기(HPM: High Power Microwave)는 적의 전자 공간의 중심을 식별하여 최적의 장소에서 폭발한다. 전자기파에 의해 발생한 수억 와트의 펄스를 이용해 적군의 스마트기기, 그리고 장비에 내장된 전자소자를 태우면서 데이터를 훼손시킨다. 이를 통해서 지휘통제 체계, ISR 센서, 통신체계, 무기체계, 데이터링크, 전산망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 지능화 체계는 컴퓨터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통신 전송에 의존하는 만큼 전자전 역량은 전장의 지능우세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⁹⁸⁾

95) 김광현, 앞의 논문(2022), p. 106.

96) 이범석, 앞의 논문(2022), p. 88.

97) Harrison·Todd, *Space Threat assessment*, CSIS, 2020, p. 4.

98) 박창희, “인공지능 시대의 지능화 전쟁: 제지능권 개념과 지능우세 달성 방안”, 『국방정책연구』, 제133호, 2021, p. 126.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2000년대에 들어 전통적 안보위협이 감소하였고 이와 반대되는 새로운 위협으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테러 위협은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이 불분명하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비전통적 안보위협 중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른 특수작전 전법발전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개념과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로 선정하였다. 즉 전통적 안보위협의 확장개념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한 국가의 전장환경, 위협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의지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중에서 특히, 테러의 영향요인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로 선정함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테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분석한 결과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요인은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라 대테러작전 전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테러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은 대테러작전 전법(대응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가 테러의 영향요인에 따른 대테러작전 전법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대테러작전 수행을 위한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운용방향도 테러의 영향요인과 대테러작전 전법의 인과성을 기초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테러의 영향요인인 다영역 차원의 테러양상, 다발적·복합적 테러 증가, 국가적 차원의 확고한 테러 대응 및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연합 대테러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평시부터 합동성 기반의 합동특수작전사령부와 예하의 합동대테러작전사령부를 편성하고 첨단 무기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한계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테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작전부대의 테러 대응체계 개선과 유관기관과 통합작전 수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과 특수작전부대 내에 관련 정책적 문제와 이슈를 담론할 수 있는 조직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발적·복합적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특수작전부대 투입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장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테러작전 전법도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합 대테러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합동성 기반의 조직을 평시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편성하며 첨단 무기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첨단의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 편성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육군 특수작전부대 임무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특수작전부대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특수병과 신설이 필요하다. 특수작전부대의 필요성은 많은 전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이처럼 특수작전의 중요성에도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혁신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에 가장 큰 문제는 특수병과의 부재이다. 즉, 과거로부터 통합된 병과는 정규전과 특수작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수작전도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특수병과 추진과 통합특수작전사령부 창설 등과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기초로 사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향후 다양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특수작전부대의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영향요인과 전법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대응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측 불가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위협에 관한 연구를 기대한다. 끝으로 최근 발생하는 저강도 분쟁과 각종 테러로 인한 특수작전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특수작전부대의 능력 보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추후 특수작전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 권순구, 『한국 대테러학: 위협과 대응』, 서울: 범문사, 2018.
- 김진항, 『포괄안보 시대의 위기관리 전략』, 성남: 북코리아, 2018.
- 김진웅·김지희, 『비교사회 연구방법론: 비교정치, 비교행정, 지역연구의 전략』, 서울: 한울, 2000.
- 박세길, 『청해부대 4진 귀국보고서』, 서울: 국방대학교, 2010.
- 양 욱, 『세계의 특수작전 I』,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 오석홍,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2020.
- 육군교육사령부·한국국가전략연구소, 『4차산업혁명 기술의 미래지상군 전투발전 및 활용방향』, 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소, 2019.
- 이만중,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인천: 진영사, 2015.
- 정구연·이기태,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KINU 연구총서, 16-04,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조순구, 『국제문제의 이해: 지구촌의 쟁점들』, 서울: 범문사, 2007.
- 최영주, 『아덴만 여명작전 현장 전투 실화』, 서울: 익투스, 2022.
- 최윤대, 『군사과학기술』, 서울: 양서각, 2005.
- 특수전사령부, 미 육군교리 3-05, 『특수작전 번역집』, 2019.
-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최근 외국인 사례를 통한 한국군 특수임무 수행의 발전방향연구』, 2016.
- 합참, 『합동·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나. 논문

- 김강녕, “최근 소말리아 해적 발생현황과 대응방향”, 『한국테러학회』, 2009.
- 김광현,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군 육군의 특수작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 _____. 김법헌,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한 특수작전 전법 발전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2020.
- _____, “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3호, 2022.
- 김기주·손경호, “다차원적 해양안보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3호 통권49호, 2013.
- 김명성, “해상교통로(SLOC)의 비전통적 안보위협 연구: 소말리아해적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성일,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의 재난대응 역할 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김수열·김경규,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지상군의 역할”, 『전략연구』, 제22권 3호, 2015.

김영호, “COVID-19 등 비전통 안보위협과 대비”, 『KIMA-FORUM』, 2020-4, 2020.

김진영,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 연구: 재난분야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6권 3호, 2020.

김태영·이창한, “군 테러 활동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1호, 2017.

김학경,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0권 1호, 2019.

남승훈·고태식, “특전사 기원의 재조명: 8240부대의 유산과 과제”,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제151집, 2021.

류동원, “중국의 비전통안보 연구: 위협 유형과 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0.

문장권,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군사혁신 방안 연구: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효과 분석”, 『군사연구』, 제150집, 2020.

박동균,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 제2권 1호 2009.

박주진·정성배·이영석, “사례분석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폭발물 테러 대응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6호, 2023.

박지훈,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704호, 2018.

박창희, “국제테러 위협과 지상군의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 『한국군사학논집』, 제72호, 2016.

_____, “인공지능 시대의 지능화 전쟁: 제지능권 개념과 지능우세 달성 방안”, 『국방정책연구』, 제133호, 2021.

부형욱·이강규, “안보위협의 진화와 우리 군의 임무: 다재성을 갖춘 적응군 건설을 위한 시론적 논의”, 『국방연구』, 제55호, 2012.

손경호, “청해부대 대해적 작전의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국방연구』, 제55권 1호, 2012.

송은희, “비전통 안보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사회과학연구』, 제27권 1호, 2016.

유형창, “국제화에 따른 한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과 대응전략”,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1호, 2012.

윤민우, “드론테러의 전략적 의미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 『가천법학』, 제12권 4호, 2019.

윤태영, “탈냉전기 비전통적 위협의 대두와 미국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戰史(전사)』, 제6호, 2004.

이범석,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훈분석 및 특수전 전력 발전방안”, 『특수작전』, 제13호, 2022.

이숙연, “신형 비전통 안보위협과 한국의 국방정책: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복합적 대응”,

- 『국가전략』, 제28권 4호, 2022.
- 이승우, “국가위기 대응 결정과정 연구: 아덴만 여명작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이준복,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테러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테러학회보고』, 제14권 2호, 2021.
- 이치영·김우진·권혁빈,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조직 비교분석”,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3권, 2016.
- 이호준, “비전통적 안보위험의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 임길봉, “미군 특수전 조직과 방법의 한국군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정현석, “국내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조용만·박성범, “비전통적 안보위험의 부상에 따른 다국적 실험의 유용성 고찰”, 『국방연구』, 제54권 3호, 2011.
- 조지연, “용병체계”, 『육군대학 연구자료』, 1986.
- 조흥제·강호증,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테러동향과 대응방안”, 『한국테러학회보』, 제13권 2호, 2020.
- 최용성, “게릴라전 양상의 변화과정 고찰”, 『戰史(전사)』, 제6호, 2004.
- 한승조, “한국군의 비전통적 위협 대응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1호, 2022.

2. 국외문헌

가. 단행본

- Harrison·Todd, *Space Threat assessment*, CSIS, 2020.
-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2004. *The 9·11 Commission Report: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New York: W.W.Norton & Company).
- Mark Owen, *No Easy Da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2012.
- Martin N. Murphy. *Small Boats, West States, Dirty Money: Piracy and Maritime in the Morden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 USSCOM. ADP 3-05 *Special Operations*, (January 2018,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18.
- Sheehan, Michael, *International Security: An Analytical Survey*.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나. 논문

- Adam J. Young & Mark I. “Valencia, Conflation of Piracy and Terrorism in Southeast Asia: Restitute & Utility”, 25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 2003.
- Cherilyn A. Walley·Charles H. Briscoe, “SF Detachment 39: SFLE in Korea”, Veritas, Vol 2, No. 1, 2006.
- Williams, Phil, “Strategy for a New World: Combating Terrorism and Translational Organized Crime.” John Baylis et al.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 기타 자료

가. 언론매체

- 국방일보, “아덴만 여명작전’ 1주년 작전성공 요인”, 『국방일보』, 2012년 1월 18일.
- 김성만,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군 통수권자의 결단”, 『KONASENT』, 2011년 1월 28일.
- 김세진, “北 신형 무인기 배치, 대남 정찰 강화”, 『MBC뉴스』, 2016년 9월 28일.
- 이우승, “삼호해운 선박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세계일보』, 2011년 1월 16일.
- 유성운, “[아덴만 여명작전] 카이샷, 스마트탄…첨단 디지털 무기들”, 『동아일보』, 2011년 1월 24일.

나. 인터넷 자료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205666> (검색일: 2023. 9. 17.)
- <https://sofrep.com/specialoperations/nswc> (검색일: 2023. 9. 20.)
- <http://www.nctc.go.kr/nctc/activity/system.do> (검색일: 2023. 9. 24.)